






인문한국(HK)지원사업  
소통 · 치유 · 통합의 통일인문학



제10회 석학초청강연회  
제11회 국내학술심포지엄

#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

2012. 4. 26 [목] 10:30~18:00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

주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 【프로그램】

등 록 10:30~10:30

개회식 10:30~11:00

사회 : 정진아(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개회사 / 김성민(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
- 축 사 / 김진규(건국대학교 총장)
- 내빈 소개 및 MOU조인식

석학초청강연(11:00~12:30)

- 주제 : 나의 삶-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하여
- 강연 : 서 승(일본 리츠메이칸대 특임교수)

점심시간 12:30~14:00

학술심포지엄(14:00~18:00)

제1부 남북주민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

좌장 :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발표 1 탈북자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현재적 양상 / 김종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발표 2 한국인의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 / 강미정(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종합토론

김현경(호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도경(대전대 교양학부 교수)

휴 식 15:50~16:10

제2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16:00~18:00)

좌장 :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발표 3 잊혀진 디아스포라, 고려인의 역사적 트라우마 / 박재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발표 4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과 그 특징 / 나지영(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종합토론

배덕호(지구촌동포연대 대표),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이 발표집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NRF-2009-361-A00008)

## 차 례

- 석학초청 강연 : 나의 삶—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하여..... 7  
/ 서승(일본 리츠메이칸대 특임교수)
- 제1발표 탈북자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현재적 양상..... 17  
/ 김종군(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제2발표 한국인의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 33  
/ 강미정(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제3발표 잊혀진 디아스포라, 고려인의 역사적 트라우마..... 49  
/ 박재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제4발표 제일 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과 그 특징... 67  
/ 나지영(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석학초청강연

주제 : 나의 삶-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하여

강연 : 서 승(일본 리츠메이칸대 특임교수)

# “나의 삶—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하여

리츠메이칸대학 서 승

<차례>

## I. 나의 삶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다-식민지와 냉전 속에서의 재일동포  
동경교육대학교 경제전공→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옥중19년  
출소-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동아시아의 냉전과 국가텔레리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하여

## II. 나의 학문 ‘동아시아’

인권문제- 국가폭력에 항거하여-중대한 인권침해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평화문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화해/협력- 민중에게 주권을  
동아시아 민중의 권리회복이라는 정의의 실현-‘동아시아 역사, 인권, 평화선언’

## III. 동아시아의 평화- ‘반도운명론’을 넘어서

백의민족, 평화애호의 한민족  
‘반도운명론’  
해양세력 일본  
대륙세력 중국의 태두  
분단 독재체제를 넘어서—근대 이후의 민중의 저항의 폭발—518과 민주화 평화주의의 태두  
일본의 정체- 중국의 대국화—한국 민중의 생명력의 약동—강정과 오키나와—국가안보에서 주민의 안전보장

## 서 승 이력

생년월일: 1945년 4월 3일 (출생지: 교토부 : 京都府北桑田郡周山町五本松)

본적지: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태평리

### 학력

1961년 4월 교토부립 사이쿄고등학교 입학(京都府立西京高校入学)

1964년 3월 교토부립 호리카와고등학교 졸업(京都府立堀川高校卒業)

1964년 4월 도쿄교육대학 문학부 사회과학과 경제전공 입학

(東京教育大学文学部社会科学科經濟専攻入学)

1968년 3월 도쿄교육대학 졸업

1968년 3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 연수과정 입학

1969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과 입학

1971년 2월 등과 학점 취득

200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사회학)학위취득

## 경력

1971. 3 국군보안사령부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됨.

1971.10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음.

197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형 선고 73. 2 대법원에서 확정.

1973. 8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세계의 양심수'에 선정됨.

1988. 12 정치범 특사에 의해 징역 20년으로 감형.

1990. 2 석방.

1991. 1-93.2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객원 연구원.

1992. 5 미국 북캘리포니아 NPO STIK (Stop Torture In Korea) 상임이사.

1994.2 타다 요코(多田謡子) 인권상 수상.

94. 4-98.3 리즈메이칸대학 비상근강사(법학부, 문학부)

1995. 4-9 오사카대학교 비상근강사

1998. 4- 리즈메이칸대학 법학부교수(비교인권법)

2001. 11-08.12 일본평화학회 이사

2003. 9-04.8 University of Victoria (Canada) 객원연구원

Humanities Centre, Lansdowne Special Fellow (03.9-12)

Visiting Researcher, 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 (03.1-7)

2004.8-9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객원연구원

2005. 6-10.3 리즈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센터장

2010.3 동 고문

2011.4 리즈메이칸대학 법학부 특임교수

2011.6.28 제1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

## 주요 업적

### 1. 저서

1994 『옥중 19년 - 한국 정치범의 투쟁-』 이와나미신서-1999 역사비평사에서 번역출간

1995 『첫발을 내디딜 때』 일본평론사

2008 『누구에도 고향은 있는 것이다 - 재일 조선인과 나』 사회평론사

2011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 기행 - 한국, 대만, 오키나와를 찾아서』 카모가와출판

### 2. 편저

2003 『현대한국의 민주화와 법·정치 구조의 변동』, 오오쿠보·서승 편 / 한인섭과 공저. 일본평론사

2003 『동북아시아 시대로의 제언 - 전쟁의 위기를 평화구축으로』 서승외 편, 헤이본사

2004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 미일중심의 지역질서의 대변을 위해서』 서승 편, 오차노미즈서방

2006 『현대한국의 안전보장과 치안법제』 서승 편, 법률문화사

2006 『현중 고구려 인식논쟁의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의 조건을 생각한다』 『동북아시아 공동체로의 길 -현상과 과제-』 마츠노, 서승, 시아 편, 문진당, 2006.3.31



- 2007 『「한류」의 내외 - 한국문화와 동아시아의 융합반응』 서승, 황성빈, 안자코 유카 편, 오차노미즈서방
- 2008 『북한이 핵을 포기할 날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향하여-』 서승 감수, 강종현 편, 코요서방
- 2009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위기 -신자유주의 경제하의 일본에 대한 교훈-』 서승, 이강국 편, 코요서방
- 2008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신진개』 서승 감수, 카나즈 히데미, 안자코 유카 편, 오차노미즈서방
- 2009 『한반도의 화해·협력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평가』 서승, 나카토 사치오, 오차노미즈서방
- 2010 번역·해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히신문출판부, 2010년
- 2011 『동아시아의 국가폭력과 인권 평화』 카모가와 출판사, 2011년
- 『뫼명과 야망을 넘어서』 카모가와 출판사, 2011년

## 동아시아에서의 인권의 탐구

### 1. 인권은 보편적인가?

애당초 '인권'은, 전제지배를 뒤엎고 권력을 장악한 인민이 사회계약이란 픽션에 의해서 근대국민국가에서의 주권자로서 '개체'를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고 공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보증장치로서 고안된 것이며, 오랫동안 국가주권 하에 국민(시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구미 남성 유산자(有産者)의 특수한 권리로 오랫동안 그 외의 무산자, 여성, 식민지 피지배자 등이 '사람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데에서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고 분명해진 것 같이, 인권이 초월적인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여 '사람' 일반의 타고난 보편적인 권리로 주장된 이상, 인권은 특수성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배제하는 '해방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인권은 처음에는 국민국가의 내적인 차별에 대해서 다음으로 국가·집단 간의 차별에 대해서, 나아가 국가의 벽을 넘어선 사람 일반의 보편적 권리로 끊임없이 그 권리의 실현을 주장하고 권리의 지평선을 확대해야 하는 사명을 받고 탄생한 것이다.

애당초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 이후 '인권의 보편성'이란 주장은 현실에는 인권이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뤄진 것으로, 선언적이며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고,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아직 인권이 보편적인 적 없었다. 특히 서구세계에서 형성된 근대법은 밖을 향해서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 '폭력으로서의 국제법'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극히 비보편적이며 특수한 성격을 가졌다.

이전전쟁 이후,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문명'의 사명을 간판으로 '야만'을 침략 지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동아시아 제국에 불평등조약을 밀어붙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긴 침략과 식민 지배의 시대를 거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동아시아 민족들은 형식적 독립을 획득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나 인권 제도를 확립하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동아시아는 냉전의 벽에 의해서 분단되어, 동서 양쪽 진영 모두 자신의 진영의 세계전략에서의 이익 추구가 최대의 관심사였고, 민주주의나 인권 등은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으로 주장됨에 불과했다. 미국은 사회주의권 비동맹국가에 대해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결여를 비판하고 직접적으로 '체제변환(regime change)'에까지 착수했지만 자신의 진영 내의 독재, 인권억압, 대량학살에는 관용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조장까지 해왔다.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인권론은 계급혁명을 통해서 궁극적인 인간의 해방을 내세웠지만, 계급독재론에 기초하고 있어 원래부터 보편적인 것으로서 구성될 수 없었다.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는 '반공'의 대의를 구실로, 미국과 해당 국가의 독재정권이 민중 학살이나 인권침해를 상시화 해왔다. 동아시아에서 인권이 사회적으로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차차 민주화 과정이 태동한 1970년대 이후였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현한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전후 헌법 개정과 함께 국민주권이 명기되어 '신민(臣民)'에서 '국민(國民)'으로의 이행에 따라 '인권'이 의식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개념은 피상적 수준에 그쳤고, 공권력의 폭력과 치열한 대항이라는 인권의 본질적 성격의 깊이까지 다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일본인민은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예속적인 '신민'이었고, 전후에도 일본국 헌법 제1조에 국민은 '주권자'로서 규정되고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가 헌법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중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제1장을 '천황'의 규정이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전과 전후의 단절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본국민은 근대적 '개체'로서 스스로 주체적인 확립을 하지 못했던 것에 그 불완전함이 기인하고 있다.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를 해체하고 다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는 일본국 헌법으로의 개정을 재촉했지만 그 헌법은 일본인 스스로가 주권자이고자 해서 피를 흘려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권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보편적, 해방적 성격이 줄기차게 인권 개념의 내용을 확충, 확대해왔다고는 해도, '인권의 보편성'은 '문명'이라는 서구의 세계지배구조 위에서 구축된 비보편적 개념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근현대사 맥락에서 보면, 전쟁, 침략, 식민지배, 대량학살이라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 지배해 온 곳에서는 생명권, (평화적)생존권, 신체

안전과 같은 기초적인 권리(Basic Rights)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일본 내 조선인 차별과 같은 일상의 차별조차 그 원인이 ‘문명’과 ‘야만’의 이원적 세계관을 전제로 당연시 되었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서 일어난 것임을 똑바로 보지 않고는 인민이 보편적 인권을 지배자, 억압자의 손에서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2. 문명과 야만

베스트팔렌 평화조약(1648년) 이후, 주권국가체제의 성립은 국가의 독립·평등과 내정불간섭의 논리에 의해서 유럽 중세세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제관계’를 만들어내고, 독립·평등한 주권자로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 시민사회로의 길을 열었다. 단, 독립한 주권은 서구 ‘문명’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정된 국가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였고, ‘야만’ 및 ‘미개’(야만으로 한테 묶겠다)에서는 향유되지 못한 권리였다. 따라서 그곳에는 당연히 보편적 인권을 존재하지 않았고 ‘야만’에게 인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문명은 야만을 ‘문명화’하는 사명을 가진 것으로, 오히려 서구의 ‘야만’적인 세계에 대한 침략, 지배, 교화가 의무로서 인식되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 시대에서 가장 선진적인 과학, 기술, 인문의 정화(精華)의 종합으로서 인식되어 있지만, 문명이 야만의 침략, 지배, 착취를 발판으로 변영한 것이라면 그런 문명 자체가 본질적으로 야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989년 파리에서 이뤄진 프랑스인권선언 200주년 기념의 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아프리카 대표는 ‘200년간, 프랑스 인권선언은 지중해를 건너 온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서구사회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획득한 후에도 보편적 인권은 문명의 벽을 넘지 않았고, 문명을 전도하고 교화를 해도 인권은 보편화 되지 않았다.

문명론이 서구 문명의 초월성을 비판하고, 각 문명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선 이후에도, 헨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보이듯 서구문명의 우월성이 주장되고 문명론이 제국주의의 지배논리라는 인식이 공유되게 된 오늘날에도 관타나모, 이부 그라이브에서의 잔학 행위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내걸고 자행되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의거해서 ‘테러리스트’나 ‘불량 국가’를 비난하며 그곳에서는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이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문명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침략과 지배, 인권침해가 오늘날에도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야베 코우키 《폭력으로 서의 국제법을 넘어서》, 2010년 참조)

서구는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향유하면서 비 서구 세계에 대해서는 서구적 기준에 따른 ‘보편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비 서구 세계는 보편적 인권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1994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제기된 ‘아시아적 인권론’의 논의가 있다. 그곳에서 인권의 역사적 단계론이나 문화론을 주장하는 ‘아시아적 인권론’은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서양 국가로부터 맹렬히 비난을 받았다. 물론 사회주의나 유교문화주의, 집단주의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적인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 피식민지, 피침략의 역사에 대한 민족주의론은 본질적인 ‘보편적’ 인권론 비판이라고 하기보다 정권 옹호의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다만, 구미제국에서 이야기되는 동아시아 인권 비판도 순수하게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향한 것은 아니며 ‘화평연변(和平演變)’(regime change)을 위한 프로파간다의 색채가 농후했다.

## 3. 동아시아란?

동아시아란 단순히 세계지도에 그려진 지리적 구분이 아니다. 루쉰은 ‘사람이 걸어서 길이 생긴다’고 했다. 근대 이후, 500여 년간 구미 열강의 침략과 지배의 발자취를 따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가 끌어내져 왔다. 원래 아시아는 단순히 그리스 건너편 기슭에서 지중해 동쪽 해안 즈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서구 세계의

확장과 함께 근동, 중동, 극동으로 그 개념을 넓혀서, 태평양의 끝 조선, 일본까지 서구가 지배하는 '아시아'라는 판도가 완성되었다. 아시아는 근대 이후, 세계질서의 중심을 차지한 서구가 만들어낸 역사·정치적 지역질서의 개념이다.

메이지 이후, 그 억압적인 서구에 맞서 자주·독립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은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동아시아 민족과 연대해서 서구 백인제국에 대항하는 '아시아주의'의 길이었고, 또 하나의 길은 서구 제국주의를 모방하여 동아시아 민족을 억압하는 '구화주의(歐化主義)'의 길이였다. 그곳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악우(惡友)'들과 결별하고 동아시아 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밀천으로 서구 신사 제군과 어깨를 나란히 '문명' 사회의 반열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즉 '문명개화'의 가치를 내걸고 철저하게 서구를 모방하여 그 폭력에 있어서 서구에게 야만한 '문명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다. 메이지 시대의 최대 외교적 비원이었던 '조약 개정'은 러시아와의 대항을 세계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영국에 영합하고, 조선반도의 지배권을 둘러싼 청일·노일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실력'을 보임으로써 '문명'국으로서 대우받는 것이 가능해졌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소제국(小帝國)으로 우뚝 섰다.

알궂게도 아시아를 침략·지배함으로써 일본은 서구 태생의 '아시아'를 일본 중심의 지역질서 개념으로 환골탈태시켜버렸다. 서구의 시선으로 본 '아시아' 개념에 일본이라는 굴절 렌즈를 끼워 넣어, 독특한 외래품을 모방하여 일본제품으로 만들어내듯 독특한 일본 버전의 아시아를 만들어낸 것이다. '아시아란 일본이다'라고 코쿠분 료세이(国分良成)씨는 말하고 있다. 일본은 전근대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華夷秩序)를 일본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아시아'를 변조했다. 일본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일본주의'로 말하는 대신에 '아시아주의'라고 했다. 그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의 소제국으로서 대일본제국 건설의 야심을 아시아, 동아, 대동아의 이름 하에서 도회(薙髮)하며 지역 지배를 진행해왔다. '대동아공영권', '대동아성전'은 일본의 '아시아주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은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 식민지배체제 청산(동아시아의 탈식민지)의 과제는 냉전의 시작으로 중단되어 동아시아 각 지역의 지배 질서는 미국 지배 하에 재편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보좌하여, 구 식민지배의 협력자(친일파)들과의 관계를 재생해서 미국의 거대한 폭력의 후광을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대부분에 그 영향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민중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다.

냉전이란 미국과 소련의 양 체제가 전지구적으로 블록을 구성해서 정치·군사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냉전은 동아시아의 탈식민지화 과정을 동결시켜버렸다. 즉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 민중의 최대 염원이었던 민족해방 과제는 좌절된 것이다. 미국의 군사 전략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는 불충분하게 행해졌으며, 군국주의의 주요 세력은 미국의 조력자로서 온전히 부활되어 폭발적인 동아시아 민족해방의 에너지를 억압했다. 그 결과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에 격한 갈등을 야기하여 민간인 대량 학살을 초래했다.

냉전의 최전선이 된 동아시아에서는 분단의 벽이 조선반도, 대만해협, 베트남을 가로질렀고, 군부 독재 하에서 계엄령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고 극단적인 국가폭력이 난무했다. 조선반도에서는 조선전쟁을 두고 반세기 가깝게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었고, 중국에서는 내전을 거쳐 장개석 정권이 대만을 기반으로 37년간에 이르는 계엄령 통치를 했다. 베트남은 40년간의 전란(戰亂)을 경험했다.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한 미군지배와 분단·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제주 4·3사건에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광주학살)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에 의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고, 그 희생자는 100만 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만에서는 1946년의 '228사건'부터 '50년대 백색 테러'까지 학살사건에서 수 만 명의 민중이 살해되었다. 이들 희생자는 '폭도', '반란분자', '통비분자', '빨갱이' 등으로 불리며, 반역자, 범죄자로서 오랫동안 세간에서 버림받은 존재였다.

1980년대에 대만·한국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드디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는 반독재정권의 중심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1989년 냉전 붕괴가 투쟁에 큰 추진력을 주어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학살사건의 명예 회복·배상운동이 전면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1996년에 고창 민간인 학살사건 배상법이 성립했는데, 광주학살

사건의 명예회복·배상이 냉전·분단체제에 큰 돌과구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명예회복·배상법 제정은 미해결이지만,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명예회복법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1999년 12월 제정되었다. 동시에 ‘민중화운동 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성립되었다. 대만에서는 1995년에 ‘228사건’에 대한 배상법이 성립하였고 1998년에 ‘계엄시기반란및첩부당심판(50년대 백색 테러)안건보상조례’ (원문: 계엄시기반란비첩부당심판안건보상조례)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과거청산의 진행, 즉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의 실현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본의 과거청산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역사인식, 교과서문제, 일본군위안부, 야스쿠니강제합사, 강제연행, 관동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 등의 문제는 모두 여기에 기인한다.

200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이하 더반선언)이 채택되었고, 서구 제국의 노예제·식민지배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을 천명했다. 서구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변모하여 세계를 지배했던 이 4, 500년의 세계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더반에서는 근대를 서구 ‘문명’의 ‘야만’에 대한 지배의 역사로 평가하고 그 지배가 차별과 편견을 낳고, 노예제와 식민지배라는 야만적인 행위를 초래한 것을 지적했다. 서구 ‘문명’사회의 ‘평등’은 밖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야만’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문명’은 애당초 본질적으로 ‘야만’이었기 때문에 ‘문명개화’를 내걸고 서구를 추종해온 일본은 ‘야만’일 수 밖에 없다.

더반선언은 현대의 지배와 차별의 근원을 고발하는 것으로 21세기 최대의 사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까닭에 노예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식민지배 문제는 수백 항목 속에서 단 2항목에서만 언급되었다.

나는 이에 자극을 받아, 한일병합 100년을 계기로 서구의 침략, 전쟁, 식민지배가 1세기 반에 걸쳐서 동아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 재발 방지라는 ‘과거청산’이 성실하게 이뤄지는 것이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동아시아 협동에 불가결한 전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민들에 의한 ‘더반선언’의 동아시아판을 만들어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더욱 보편적이고 장기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2009년 가을 마에다 아키라씨 등 몇몇 분들과 ‘동아시아 역사·인권·평화선언’을 작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합병 100년을 한일의 ‘사죄와 용서’ 세레머니나 일과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와 동아시아 근현대사 속에 자리매김하여, 보편적 문제로 제기하여 ‘선언’을 준UN문서로 하여,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논의 등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참조해야만 하는 문서로 할 예정이다. 작년 8월 22일(일본), 29일(한국)에서의 ‘한일 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공동선언대회’에서 제안하여 동아시아 각 NGO에서 각 분야에서의 현황과 과제를 집약해서 행동계획을 완성시켜, 2011년 9월 더반선언 1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선언’의 보고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인권론의 인식과 역사적 과정을 바탕으로 하면 동아시아에서의 인권이란 명백히 서구의 ‘보편적 인권’과는 다른 것이다. 즉, 보편적 인권이라는 허위의식의 외투를 벗기고 진정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구(헤게모니 중심)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장악을 해제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중심의 ‘아시아’라는 허위의식이 해제되어 지역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대한 과제는 서구·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배 책임을 물어, 탈식민지의 과제를 달성함에 의해서 근대 이후 500년의 지배질서를 해체하고 진정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전쟁 이후 이어져온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해서, 일본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과거의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진상규명·권리회복을 함에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민지배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명확한 국제적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제1부 남북주민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

좌장: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제1발표 : 탈북자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현재적 양상

김종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제2발표 : 한국인의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

강미정(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종합토론

김현경(호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도경(대전대 교양학부 교수)





# 탈북자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현재적 양상

김종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1. 들어가며: 탈북자들의 특수성

이 글은 코리언 전반이 가진 역사적 트라우마를 진단하고 그 특징적인 요인들을 해석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1차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남북한의 주민은 물론이고, 재중 조선족·재러 고려인·재일 조선인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 한 분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진단하는 연구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조사는 현 시점에서는 막연할 뿐이다. 이에 그 대안으로 북한에서 출생하여 성장과정을 거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 이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가진 역사적 트라우마의 단초를 어느 정도는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통해 얻은 설문지의 결과가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탈북의 과정에서 특수한 경험을 한 집단이고, 또한 국내에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북한에서와는 다른 시각을 접했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탈북자들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탈북자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북한에 거주하면서 일상과 교육을 통해 인지한 북한 주민으로서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탈북의 과정에서 발현한 탈북자로서의 트라우마로 이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으로서 가지는 트라우마는 코리언이 겪은 역사적 사건들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여타 지역 코리언에게 적용한 분석틀을 대등하게 적용하여 역사적 트라우마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의 과정에서 발현된 트라우마는 유일하게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현재적 양상으로서 별도로 ‘탈북트라우마’라는 유형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실체는 일체의 의해 강압적으로 자행된 식민지의 역사 속에서 발현된 식민트라우마가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식민트라우마는 외상을 입힌 주체인 일본이 과거 식민시대의 만행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가 따르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제 식민의 역사는 그 자체로 종결되지 않고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는 거대한 과오를 낳는다. 민족의 분단은 수많은 외상을 유발하는데 이 모든 외상을 분단트라우마로 지칭한다. 분단트라우마 역시 역사적 트라우마이면서 남북이 적대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 갈등의 순간마다 트라우마로서의 속성들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탈북자들이 탈북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된 외상인 탈북트라우마는 역사적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 양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탈북이라는 행위는 분단된 현실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이 또한 분단트라우마의 한 범주라고 지칭할 수 있겠다. 그런데 탈북자들에게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기인한 외상을 읽어내는 것은 흔치 않아 보인다. 오히려 탈북의 과정에서의 외상이 훨씬 비중 있게 인지되고, 현재적 양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탈북자 집단에게서만 특징적으로 발현하는 분단트라우마를 탈북트라우마로 대치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분단된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분단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건들에서 트라우마가 발현되기도 하겠지만 이들에게 현재적 문제로 가장 크게 와 닿는 것은 탈북트라우마이므로 분단트라우마의 대체도 큰 무리는 아닐 듯하다.

탈북자들을 만나서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가 탈북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은 탈북과정에서 대체로 유사한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탈북의 과정에서 겪었던 외상으로는, 두만강 도강

의 공포·중국 공안의 추적 공포·인신매매 등의 브로커의 횡포·한국입국 과정에서의 공포 등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외상으로, 국정원 조사과정에서의 억압·테러에 노출된 공포·남한 사람들로 부터 받는 멸시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모든 외상은 탈북트라우마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에서 가해지거나 표면화된 외상과 더불어 이들에게는 탈북자로서 겪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뇌가 존재할 것으로 추론된다. 탈북의 과정에서 가족과의 결별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이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이를 이산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산트라우마는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의 강제 이주 형식의 역사적 실체와는 구분되는 21세기형 이산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북 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표출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폭력으로 인식되므로 이를 국가폭력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양상은 이들이 탈북 후 국내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남한 주민들에게서 받는 억압과 멸시가 큰 외상으로 자리잡는데, 이를 사회폭력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탈북자에게 발현되는 탈북트라우마의 양상은 이산트라우마, 국가폭력트라우마, 사회폭력트라우마로 유형화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탈북자들의 설문에서 특징적으로 도출되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그것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북한 주민으로서 살아오는 동안 형성 고착된 역사적 트라우마가 탈북과정에서 쉽게 변질되거나 용해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 실상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탈북자들이 탈북과정에서 가장 현재적으로 체험한 탈북트라우마의 양상들에 대해서도 그 단초를 찾아서 분석하고자 한다.

## 2. 설문조사 내용과 유효 변별항목

이번 설문조사는 코리언의 민족공통성 전반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 기획되었고, 그 가운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의식조사는 현재의 불통 상황의 제약으로 도저히 불가하였으므로 탈북자들로 대체하였다. 설문 조사는 탈북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1건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무효 처리하고 총 109건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은 이번 코리언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적은 표본 숫자인데, 이는 국내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2만여 명으로 여타 지역의 코리언 집단의 수보다 월등히 소수임을 감안하여 책정한 결과이다. 조사는 2012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개인별 대면을 통해 실시하였고, 조사원은 대상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탈북대학생 3명을 활용하였다.

탈북자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북한 주민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의 국내 유입이 대체로 2001년부터 급증<sup>1)</sup>하기 시작하여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문 대상자 109명 가운데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입국한 수가 29명이고, 2006년 이후에 입국한 수는 77명, 무응답이 3명이다. 그리고 제3국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55%수준이다. 물론 무응답이 22%를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대체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북한에서 10대를 거친 세대들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북한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역사 인식은 북한의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이처럼 탈북자들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사의식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역사의식은 학교 교육에서 습득되고 변화되는 경향이 크다. 곧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이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고려해야 할 항목은 국내 입국시기이다. 특히 10대나 20대의 경우는 2006년 이전에 입국한 경우는 남한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역사 인식이 갖추어진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

1)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통일부, 2012.2월 기준)>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남(명)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여(명)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합계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이다. 그런데 이 표본 상으로는 전체 조사 인원의 10%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므로 전체 조사 대상 109명 가운데 10%를 제외한 100명 정도는 현재 연령과 국내 입국시기를 고려했을 때 북한에서 교육받거나 형성된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단정할 수 있다.

설문 문항은 기본 질문으로 나이·성별·학력·직업·거주지역·결혼유무·가족형태·가족구성·거주형태·소득수준·남한입국연도·제3국 체류기간·탈북동기의 13항목을 먼저 제시하여 유효한 변별항목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 문항은 96문항으로, 민족정체성·분단 및 통일의식·역사적 트라우마·생활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역사적 트라우마를 진단하고자 설정한 문항은 44번부터 67번까지 총 24문항으로서, 대체로 여타 코리언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항화하고자 하였으나 남북의 주민과 코리언 디아스포라에게 동일한 질문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실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변형을 가하였다.

그런데 설문 문항의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유사한 층위로 세팅하는 과정에서 주로 역사적 트라우마, 그 가운데서도 식민트라우마를 진단하는 문항에 치중한 설문들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분단 트라우마를 진단할 수 있는 항목들은 축소되었다. 아울러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남북한에서 겪는 사회적 폭력들을 진단하는 항목들이 공통의 문항으로 설정되어 탈북자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 이에 다른 분석 의도로 설정한 항목들 가운데서 트라우마를 진단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역사적 트라우마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 세팅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탈북트라우마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근거가 될 만한 문항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지만 분석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항목이라면 끌어서 활용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에서 예측 가능한 트라우마 양상은 식민트라우마와 분단트라우마·국가폭력트라우마·사회폭력트라우마·이산트라우마로 갈래지어진다. 이 가운데 식민트라우마와 분단트라우마는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이며, 북에서나 남에서 겪은 정책적 홀대는 국가폭력트라우마나 사회폭력트라우마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탈북자로서 겪은 심리적 상처 중에서 가족과의 이산과 고향을 그리는 심리는 이산트라우마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세 유형은 탈북트라우마로서 이들이 겪는 현재적 양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탈북자들에게서 도출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역사적 트라우마와 현재적 트라우마로 이원화하여 분석할 때 유효한 변별 항목은 우선 나이와 국내 입국연도와 제3국 체류기간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이는 세대간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10,20대의 청년층의 역사인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국내 입국연도는 두 가지 이유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인 초창기에 국내에 입국한 집단은 2006년 이후 입국자 집단과 비교할 때 국내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남한의 문화에 동화된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입국 시기에 따른 보수화의 경향은 트라우마를 진단하는데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입국연도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2006년 이전 입국자의 경우 초창기 탈북자 집단으로서, 북의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0년대 후반에 탈북하여 비교적 긴 시간 중국에 머문 경험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총괄 1

연령	항목	전체	성별			입국시기		
			남	여	무응답	2006년이전	2006년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54	53	2	29	77	3
	10대	1.8		3.8			2.6	
	20대	37.6	50.0	24.5	50.0	37.9	39.0	
	30대	16.5	11.1	22.6		6.9	20.8	
	40대	25.7	24.1	26.4	50.0	34.5	23.4	
	50대	10.1	7.4	13.2		10.3	7.8	66.7
	60대이상	7.3	7.4	7.5		10.3	5.2	33.3
	무응답	0.9		1.9			1.3	

<표 2> 총괄 2

연령	항목	제3국체류기간					탈북동기					
		1년미만	1-5년	6-10년	11년이상	무응답	굶주림	체제반발	돈벌이	가족권유	기타	무응답
사례수		15	45	21	4	24	30	45	10	17	7	1
10대			4.4							12.5		
20대		33.3	33.3	38.1		54.2	36.7	37.8	30.0	50.0	28.6	
30대		6.7	26.7	19.0		4.2	23.3	13.3	40.0		14.3	
40대		20.0	22.2	28.6	100	20.8	13.3	35.6	30.0	12.5	42.9	
50대		20.0	6.7	9.5		12.5	20.0	6.7		6.3	14.3	
60대이상		20.0	4.4	4.8		8.3	6.7	6.7		12.5		100
무응답			2.2							6.3		

아울러 탈북자들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현재적 트라우마를 진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제3국 체류기간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제3국이라 하면 보통의 경우는 중국이며, 태국이나 몽골, 그 외 국외추방 형식으로 입국한 경우는 필리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이나 국경수비대 등에 쫓기는 가운데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그러므로 제3국 체류기간은 탈북트라우마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현재적 트라우마를 진단하는 또 다른 항목은 탈북 동기라고 볼 수 있다. 북에서의 굶주림, 북한의 폐쇄된 체제에 대한 반발 등은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경제적 이유나 가족의 권유에 따른 탈북은 결정적인 탈북트라우마로 진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외에 남녀의 성별도 트라우마 인식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학력과 수입 등이 유의미한 변별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탈북자의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

#### 3.1. 식민트라우마의 양분화 양상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중 식민트라우마의 자장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근원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의 경우도 우리를 둘러싼 여러 주변국들 가운데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노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이 공히 일제 강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북의 경우는 북 정권 창출의 기반을 항일무장투쟁에 두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제 강점에 대한 반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표 3>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일본	<b>72.5</b>	100.0	80.5	83.3	60.7	54.5	62.5	100.0	41.4	85.7	33.3
미국	5.5			5.6	3.6	27.3	12.5		3.4	3.9	66.7
소련	4.6		2.4		10.7		12.5		13.8	1.3	
중국	15.6		17.1	11.1	21.4	9.1	12.5		<b>37.9</b>	7.8	
중복응답	.9				3.6					1.3	
무응답	.9					9.1			3.4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탈북자들은 일제의 식민 역사에 대해 반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전체적으로 72.5%가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준 주변국으로 일본을 선택했고, 이러한 경향은 전체 연령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0대나 20대, 30대의 경우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80% 수준임에 비해 40대 이후는 60%대를 유지하면서 상처를 준 주변국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삶의 과정-특히 탈북의 과정에서- 젊은 층에 비해 다양한 주변국 사람들을 접한 경험의 토대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30대 이전의 젊은 층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유

는 북에서나 혹은 남에서의 교육의 영향일 수도 있으며, 근래 문제가 되는 일본의 과거사 망언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여러 통로를 통해 쉽게 접하는 과정에서 강화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식민트라우마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이 문항에서 뜻밖의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는 탈북자로서 가지는 특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데, 탈북과정에서 중국 체류기간 동안 느낀 공포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탈북트라우마의 가장 큰 특징으로 표출된 것인데, 국내 입국연도가 2006년 이전인 사람들은 일제의 식민트라우마와 중국에서 겪은 탈북트라우마를 거의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2005년 이전에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시기에 탈북을 하여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험을 가진 존재들로서, 이들이 느낀 트라우마는 일제 식민이라는 역사적 사건보다 비중 있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이기 때문에 식민트라우마의 인지 정도를 확인하는 설문에서 중국에서 겪었던 탈북트라우마가 혼재하여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점은 탈북자들도 일제에 의한 식민트라우마를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끼친 식민트라우마의 가장 큰 폐해는 남북분단과 전통문화의 훼손을 비슷한 비율로 꼽았다.

<표 4> 일제식민지 지배가 우리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1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5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남북 분단	<b>36.7</b>	100.0	22.0	27.8	<b>39.3</b>	<b>54.5</b>	<b>75.0</b>	100.0	<b>41.4</b>	32.5	100.0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4.6		7.3	5.6		9.1			6.9	3.9	
경제적인 곤란	8.3		9.8	16.7	7.1				6.9	9.1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b>35.8</b>		<b>43.9</b>	<b>38.9</b>	32.1	36.4	12.5		31.0	<b>39.0</b>	
우리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14.7		17.1	11.1	21.4		12.5		13.8	15.6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제 식민지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를 남북분단과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36% 수준으로 꼽았다. 이러한 시각은 이례적인 경우로 여타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이 남북분단을 월등히 많이 꼽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과 탈북자는 남북분단과 전통문화 훼손과 단절을 일제식민지 지배의 폐해로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은 남북분단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분단된 영토를 삶의 근거지로 살아가는 남북주민과 해외에서 고국을 그리는 디아스포라가 남북분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남북주민에게 분단은 현장성을 띠고 있으므로 일제식민 통치라는 역사적 결과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낮을 수 있으며, 해외 디아스포라의 경우는 돌아갈 고국이 분단됨으로써 귀환의 기회들이 박탈되었다는 피해의식이 작용하여 일제식민 통치의 역사적 폐해로 심각하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탈북자들 중 대체로 30대 이전 젊은 세대에서는 전통문화 훼손과 단절을 가장 큰 폐해로 꼽았고, 40대 이후부터 점점 남북분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들은 남북분단을 일제의 폐해로 비중 있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졸이하의 학력과 회사원·노동자 직업의 대상자들은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장년층과 고학력자 집단에서는 분단을 식민트라우마와 연계하는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데 반해 청년층과 저학력집단, 노무자 집단에서는 분단의 문제를 식민통치와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양분적으로 대비되는 경향성을 띠는 이유는 분단과 식민트라우마를 연계하는 집단의 경우 중년이후 세대는 삶의 경험을 토대로, 고학력자의 경우는 학교 교육을 통해 식민트라우마와 분단에 대한 역사 인식을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한편으로 북에서 대중 교화사업으로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생활 현장에서 일제에 의한 전통문화 훼손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를 인지한 결과라고도 볼 여지가 크다. 중요한 것은 탈북

자 집단에서도 역사 인식의 차이가 뚜렷이 발견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6년 이전에 입국한 경우는 남북분단을 더 큰 폐해로 꼽았으나 2006년 이후 입국자는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일제의 폐해로 더 비중 있게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6년 이전 입국자들의 경우 탈북 이후 중국에서의 도피나 유랑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재중 조선족들이 가지는 시각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곧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제3국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집단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유사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식민과 분단의 문제를 연계하는 역사 인식의 유무는 식민트라우마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지점에서도 양분화하여 나타난다.

<표 5>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1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분단 극복과 통일	<b>45.0</b>	100.0	36.6	44.4	42.9	<b>63.6</b>	<b>62.5</b>		<b>34.5</b>	<b>46.8</b>	100.0
자주적 외교	17.4		22.0	16.7	17.9	9.1	12.5		20.7	16.9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	12.8		19.5	11.1	10.7			100.0	10.3	14.3	
북-일, 북-미 수교	6.4			5.6	17.9	9.1			13.8	3.9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17.4		22.0	16.7	10.7	18.2	25.0		20.7	16.9	
무응답	.9			5.6						1.3	

탈북자들은 일제의 청산을 위한 방안으로 분단 극복과 통일을 과반수 가까이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자주적 외교와 민족 자존감 회복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을 방안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별, 입국년도에 따라 크게 어긋나지 않게 드러난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파고들어 보면 분단 극복과 통일의 문제를 식민트라우마 극복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비율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월등히 높고, 그에 비해 2,30대의 청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또한 다른 변별 항목으로 분석해 보면 고학력과 고소득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에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와 연동되는 결과로서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역사의식을 갖춘 집단에서는 식민의 문제와 분단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인지하는 데 반해 역사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집단에서는 식민트라우마와 분단트라우마의 상관성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 다시 탈북자들의 역사적 트라우마 인지도의 양분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목해 볼 변별항목은 입국년도에 따른 경향성인데, 2006년 이전에 입국한 집단은 일제 식민지 청산 과제로 분단 극복과 통일을 높은 비중으로 꼽으면서 자주적 외교·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항목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어 다원화된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이는 2006년 이후 입국집단과는 근소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다. 2006년 이전 입국 집단은 국내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적응과정에서 한국인의 의식으로 변화하는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탈북자의 역사 인식의 또 다른 양상은 국내에 오래 거주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존재들일수록 보수화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표 6> 한반도에서 일제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	<b>10.1</b>		17.1		3.6	18.2	12.5		3.4	11.7	33.3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b>57.8</b>	100.0	53.7	72.2	64.3	27.3	50.0	100.0	48.3	61.0	66.7
거의 다 청산되었다	29.4		24.4	27.8	28.6	54.5	37.5		<b>44.8</b>	24.7	
완전히 청산되었다	2.8		4.9		3.6				3.4	2.6	

탈북자들의 경우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70%가 아직 잔재가 남아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대체로 50대 이후의 장년층에서는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내 입국년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2006년 이전에 입국하여 남한의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는 50%에 가깝게 일제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었다고 보고 있어 보수화의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고학력이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이것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인과 동화되는 경향과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겠다.

### 3.2. 일본에 대한 반감과 선망의 착종 : 반일감정과 실리추구의 사이에서

상식적으로 일제에 대한 식민트라우마는 반일감정으로 표출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해 탈북자들은 색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제 식민의 역사에 대한 용서를 묻는 항목에서는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죄를 전제로 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7> 일본인 때문에 고생했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결코 용서할 수 없다	<b>22.0</b>		19.5	16.7	17.9	27.3	<b>62.5</b>		10.3	<b>24.7</b>	66.7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	<b>40.4</b>		46.3	33.3	46.4	36.4	25.0		48.3	39.0	
용서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b>31.2</b>	100.0	26.8	50.0	28.6	18.2	12.5	100.0	34.5	29.9	33.3
불행한 과거이므로 잊자	6.4		7.3		7.1	18.2			6.9	6.5	

일제에 대한 용서는 60대 이상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로 용서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입국한 경우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북한에서의 역사 인식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국내에 입국한 기간이 짧은 집단은 북에서의 일본에 대한 감정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정권의 정통성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반일감정이 남한에 비해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 통계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역사에 대해 용서하지는 경향성은 역사적 사실에 매여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과들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의 자세 이면에는 식민트라우마의 발현으로 감정적인 반감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민트라우마의 감정적 발현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 문항들을 다양하게 설정하였고, 여기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8>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더 싫다.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매우 그렇다	<b>24.8</b>	100.0	26.8	5.6	14.3	45.5	37.5	100.0	13.8	27.3	66.7
약간 그렇다	<b>45.0</b>		46.3	61.1	39.3	36.4	50.0		27.6	51.9	33.3
그렇지 않다	27.5		24.4	33.3	<b>42.9</b>	9.1	12.5		<b>51.7</b>	19.5	
전혀 그렇지 않다	2.8		2.4		3.6	9.1			6.9	1.3	

탈북자들은 일본인들에 대한 반감을 70% 수준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별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특히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는 반감의 정도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그에 비해 40대에서는 그 정도가 약화되고 있다. 아울러 입국년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6년 이전에 입국한 경우는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확연히 약화된 데 비해 2006년 이후 입국자는 그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소득과 학력을 기준으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자나 고소득자의 경우는 반감 표출이 약화되는 데 비해, 저소득층에서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와 일본과의 직접적인 대결구도를 설정한 항목에서는 유사한 결과로 도출된다. “일본인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값아주고 싶다”는 보복의 감정을 묻는 항목<sup>2)</sup>에서 70% 가량이 그렇다는 감정을 드러냈는데, 60대 이상의 장년층의 반감이 두드러졌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서 기반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해 40대나 대학생 이상의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주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집단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결국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의식이 감정적인 역사 의식을 앞선다는 진단이 가능하겠다.

이와 유사한 질문으로 축구경기를 예를 들어 식민트라우마의 감정적 발현에 대해 진단하고자 하였다.

<표 9>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할 때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그렇다	<b>89.9</b>	100.0	90.2	94.4	82.1	90.9	100.0	100.0	72.4	96.1	100.0
그렇지 않다	10.1		9.8	5.6	17.9	9.1			<b>27.6</b>	3.9	

일본과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설정하자 90%가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감정을 드러냈다. 40대와 대학생, 고소득자가 좀 약하고 60대 이후는 강경하다. 입국년도에 따른 차이도 확연하여 2006년 이전 입국자들은 감정적 원한이 약화되어 있다. 이 결과 역시 위 항목의 결과와 흡사하게 해석된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일본과 직접적인 대결구도가 아닌 상황에서는 일본에 대한 감정을 다소 객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0> 일본과 축구 경기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일본이 지길 바란다.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그렇다	47.7	100.0	48.8	50.0	32.1	54.5	<b>75.0</b>		41.4	48.1	100.0
그렇지 않다	52.3		51.2	50.0	<b>67.9</b>	45.5	25.0	100.0	<b>58.6</b>	51.9	

일본에 대한 절대적인 적대감은 60대 이후에서 두드러지고 대체로 50% 선에서 고른 분포를 보인다. 다만 40대가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성과 고학력자, 회사원, 노동자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기울어졌다. 입국년도에 따른 차이는 2006년 이전 입국자들이 좀 더 우호적인 모습이다. 이는 앞선 분석과 유사한 결과로서 경제적인 실리를 우선시하는 경향과 보수화 경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인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값아 주고 싶다.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매우 그렇다	23.9		22.0	16.7	7.1	45.5	87.5		17.2	23.4	100.0
조금 그렇다	45.0	50.0	53.7	61.1	39.3	27.3	12.5		34.5	50.6	
그렇지 않다	22.0	50.0	17.1	22.2	35.7	9.1		100.0	20.7	23.4	
전혀 그렇지 않다	9.2		7.3		17.9	18.2			27.6	2.6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할 문항이 있다. 일본의 경제력과 관련된 문항이다.

<표 11>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게 억울하다.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그렇다	35.8	100.0	34.1	38.9	21.4	18.2	<b>87.5</b>	100.0	34.5	35.1	66.7
아니다	<b>64.2</b>		65.9	61.1	78.6	81.8	12.5		65.5	64.9	33.3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게 억울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인다. 60대 이상의 연령을 제외하고는 정도 차이가 다소 있을 뿐 대체로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40, 50대의 경우는 60대 이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성장을 반일이나 복수의 감정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경제활동에 주력하는 연령대와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이 일본의 경제대국화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 실리와 역사적 감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탈북자들의 실리적 면모를 읽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탈북자들의 식민트라우마는 분단된 반쪽에서 살았던 북에서의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경향은 대체로 남한주민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반일의식은 큰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입국연도의 변별항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6년 이전에 입국하여 국내 정착을 이룬 집단과 그 이후 입국한 집단을 비교하는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남북한 주민들의 식민트라우마 발현과 반일감정의 정도는 남한에 비해 북한이 좀 더 강경하고 민족주의적 결속<sup>3)</sup>이 강하다고 진단할 수 있겠다. “북한은 조선민족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탈북자들의 73% 이상이 그렇다는 답변을 보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 탈북트라우마의 현재적 양상

탈북자들에게 6.25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단트라우마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설문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탈북이라는 행위 자체가 분단트라우마의 현재적 양상이고, 이들은 여타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역사 속에서 겪은 유랑과 이산이라는 이산트라우마를 현재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 이유가 굶주림이었던 북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었던 간에 삶의 터전을 박차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존재들이고 뿌리 뽑힌 자로서 척박한 생을 살아내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이 트라우마로 속속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은 탈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 체제에 대한 강경한 비판의식으로 북의 국가폭력을 고발하고 있으며, 남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홀대와 폭력을 절감하고 있는 집단들이다. 이에 더하여 탈북의 과정에서 체험한 극한의 공포까지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분단트라우마는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전개된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산과 국가 사회적 폭력과 탈북의 공포가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탈북자들에게 현재적으로 드러나

3) 북한은 조선민족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매우 그렇다	46.8	50.0	43.9	33.3	46.4	63.6	75.0		51.7	42.9	100.0
약간 그렇다	26.6	50.0	34.1	16.7	28.6	9.1	12.5	100.0	27.6	27.3	
그렇지 않다	16.5		12.2	44.4	14.3	9.1			10.3	19.5	
전혀 그렇지 않다	7.3		4.9	5.6	7.1	18.2	12.5		10.3	6.5	
무응답	2.8		4.9		3.6					3.9	

는 트라우마 양상을 이산트라우마, 국가폭력트라우마, 사회폭력트라우마로 세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탈북자들에게 이것들이 모두 분단트라우마의 현재적 양상이므로, 이를 특화하기 위해 탈북트라우마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4.1. 이산트라우마와 귀향의 소망

탈북자들이 겪은 유랑과 이산의 고통은 역사 속에서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이 겪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시간이 흐른 후 역사에서는 탈북자들을 21세기에 형성된 새로운 코리언 디아스포라로 기술할지 모른다. 현재도 이들의 신분을 디아스포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탈북자에게 탈북트라우마로 가장 강하게 인지되는 요소는 이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극한의 탈북과정에서 온 가족이 탈출을 감행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혈혈단신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들이 국내 입국하여 북에 있는 가족의 탈북을 이끌지 못한 경우는 이산가족의 형태로 애절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울러 탈북 후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제3국으로 망명을 한 경우는 또 다른 코리언 디아스포라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12>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이산의 고통	<b>64.2</b>	100.0	58.5	55.6	<b>82.1</b>	54.5	62.5		62.1	64.9	66.7
외세에 의한 민족자존의 손상	4.6		7.3	5.6				100.0	3.4	5.2	
민주주의의 왜곡과 발전저해	8.3		9.8	11.1	3.6	9.1	12.5		20.7	3.9	
경제발전의 저해	6.4		7.3	11.1		18.2				9.1	
남북의 적대와 긴장	16.5		17.1	16.7	14.3	18.2	25.0		13.8	16.9	33.3

분단의 가장 큰 상처는 이산의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남북의 적대와 긴장을 들었다. 이러한 시각은 연령별, 입국 시기별 고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40대는 80% 이상이 이산의 고통을 분단트라우마로 인식하고 있다. 설문 기초 문항으로 가족의 구성을 묻는 질문에 40대 대상자 28명 중 42.9%가 독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년의 나이로, 탈북을 감행할 시기에 북에 자녀와 부모를 모두 두고 올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이므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을 만나서 심층 면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애담을 듣게 되면 거의 모든 사례에서 탈북과정에서 이산이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혈육이 죽어가는 과정을 눈으로 목격하거나 자신의 탈북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죽음의 위기에 처할 가족을 버리고 나온 심리적 외상은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은 북에 대한 이중적 감정을 갖게 된다. 폐쇄적인 국가 체제 속에서 극단의 굶주림을 체험하게 한 지옥같은 땅이면서도 자신이 태어나고 가족이 살고 있는 그리움의 땅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를 묻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북퍼주기 사업을 22%가 표시했고, 그에 정반대의 입장인 대북봉쇄정책을 12.8%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자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량 지원을 철폐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후자는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봉쇄정책을 풀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인 경향은 강경한 쪽이 10% 이상 높이 차지하고 있는데, 40대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를 보였다. 28%가 전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반면 그보다 높은 32%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탈북자들이 대체로 고향인 북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진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40대에서 극대화되고 있음

도 확인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북에 대해 갖는 이중적 감정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으로 표출된다. 살고 싶은 나라를 묻는 질문과 남과 북 중 호감이 가는 곳을 묻는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전체)	나이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남	여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54)	(53)	(2)
한국	64.2	100.0	58.5	77.8	60.7	72.7	50.0	100.0	48.1	81.1	50.0
북한											
통일한반도	33.0		39.0	22.2	35.7	27.3	37.5		48.1	17.0	50.0
제3국	1.8				3.6		12.5		1.9	1.9	
중복응답	.9		2.4						1.9		

탈북자들에게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냐고 물었을 때, 64.2%는 한국을, 33%는 통일한반도를 대답했다. 북한을 선택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는 답변의 이면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탈북이 북을 버린 행위이므로 북한을 선택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답변은 남한이나 제3국으로 모아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통일한반도를 꼽고 있다. 통일한반도는 미래적 공간이거나 상상의 공간일 뿐이다. 결국 그 이면에는 자신을 유랑하게 하고 가족과 이산하게 한 북의 체제는 싫지만 고향으로서의 북은 살고 싶은 곳이라는 뜻이다. 탈북을 하여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지만 통일만 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귀향의 소망을 간절히, 은밀히 표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탈북자의 면담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모두 풀어 놓은 다음에 “왕소금 한 홉과 배를 채울 통강냉이 한 짝지만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회한 섞인 토로가 눈여겨 보이는 지점이다.

탈북자의 이산트라우마의 실체를 읽을 수 있는 항목이 “남과 북 가운데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느냐?”는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 59.6%는 남한을, 6.4%는 북한을, 33.9%는 둘 다 똑 같다는 답변을 보였다. 탈북이라는 계기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모두다 남한을 선택할 것 같은데, 40%가 굳이 남한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선택한 답변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족과 친지가 살고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를 선택한 비율이 71.4%에 해당하는 것을 본다면 이들의 귀향의식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탈북자들이 분단트라우마로 이산의 고통을 가장 높은 빈도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가진 트라우마의 현재적 양상의 발현으로 보인다.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이들이 갖는 이산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 4.2. 국가폭력트라우마의 확대인식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행위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 북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탈북 자체가 어떤 동기이든지 간에 북의 입장으로 보면 반국가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변론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 결과 북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국가폭력에 대해 강하게 반감을 표출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들의 북 체제에 대한 비판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이 가진 국가폭력트라우마를 진단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지는 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은 대체로 북의 폐쇄성을 가장 비중 있게 꼽았다. 60% 정도가 북에 대한 인상이 폐쇄적인 나라로 인식되어 있었고, 19% 정도로 경제적 낙후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너무 집단적인 나라로 인식한 경우는 10%로, 이 세 항목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의 90%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에 반해 민족적 자긍심이 강하다는 인식, 평등한 나라라는 인식, 인정미가 넘치는 나라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10%로 나타난다.

<표 14-1> 북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

	(전체)	나이						무응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나라다	7.3		9.8		3.6	18.2	12.5	
폐쇄적인 나라다	<b>56.9</b>	100.0	61.0	55.6	53.6	54.5	50.0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다	<b>19.3</b>		14.6	33.3	21.4	9.1	25.0	
평등한 나라다	2.8		7.3					
인정미가 넘치는 사회다	2.8		4.9				12.5	
너무 집단주의적인 나라다	10.1		2.4	11.1	17.9	18.2		100.0
무응답	.9				3.6			

탈북자들이 인지하는 폐쇄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인지는 설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심층 조사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구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가장 큰 요인은 신체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며, 거주 이전의 자유 역시 제한적이라는 것, 언론이나 방송 매체가 통제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각은 대체로 그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식량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강하다. 그렇다면 결과는 경제적 낙후성이 우세해야 할 것이다. 결국 통계를 가지고 본다면 그들은 폐쇄적인 북 체제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탈북을 감행한 경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조사 대상자에게 기초 설문으로 탈북 동기를 묻는 항목에서 41%가 북 체제에 대한 반발을 꼽았고, 27.5%가 굶주림을 동기로 꼽고 있다.

<표 14-2> 북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

	탈북동기						남과 북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		
	굶주림	북한 체제 반감	돈벌이	가족 권유	기타	무응답	남한	북한	둘 다 똑 같다
사례수	(30)	(45)	(10)	(16)	(7)	(1)	(65)	(7)	(37)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나라다	<b>13.3</b>	6.7			14.3		7.7	<b>28.6</b>	2.7
폐쇄적인 나라다	<b>46.7</b>	62.2	<b>50.0</b>	68.8	57.1		63.1		56.8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다	<b>30.0</b>	11.1	<b>30.0</b>	12.5	14.3	100.0	13.8	<b>57.1</b>	21.6
평등한 나라다		6.7					3.1		2.7
인정미가 넘치는 사회다		2.2		12.5				<b>14.3</b>	5.4
너무 집단주의적인 나라다	10.0	8.9	20.0	6.3	14.3		10.8		10.8
무응답		2.2					1.5		

탈북동기를 변별항으로 삼아 살펴보면 그 양상은 조금 달리 파악된다. 굶주림과 돈벌이를 탈북동기로 답한 집단은 경제적 낙후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경제적 낙후성이 국가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시각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국가폭력의 범주로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사는 북에서는 경제적 낙후 역시 국가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설문에서는 탈북자들이 북에서 겪은 국가폭력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이에 연구단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구술조사를 한 자료를 근거로 그들이 체감하는 국가폭력의 양상들을 읽어 보고자 한다.

<표 15> 탈북자의 경험담 구술 목록

옆집에 살았던 지휘자 가족	스카치테이프를 보고 놀랐던 탈북 여성
라디오로 남한 방송을 듣는 사람들	남편 옆에서 새 남편과 첫날밤을 보낸 탈북 여성
빈곤했던 친척네 제사상	탈북 후 깨닫게 된 자기 자신
연소기름으로 부쳐 먹었던 지짐이	탈북 여성들의 정절 관념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항변

가난한 북한의 시골풍경	중국의 탈북자 복송조치에 대한 원한
노숙을 했던 경험과 길에서 만난 고향 소녀	‘국가’에 대한 애절한 심정
새롭게 이사 간 마을에서 만난 모자(母子)	탈북자로서의 반공의식
풀득이 올라 고생했던 옆집 가족	김일성, 김정일만을 찬양하는 북한 사회
어머니를 잃은 소년	탈북 후에 꿈꾸게 된 미래의 삶

위에 든 내용들은 연구단에서 실시한 탈북자 구술조사에서 구술자가 한 경험담을 이야기 주제별로 제목을 붙인 것이다. 탈북자 한 사람의 특수한 경험담을 전체의 경향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도 있겠지만 9건의 구술조사 현장에서 대체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었고, 대표적으로 위의 표를 끌어 온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이야기의 주제는 대체로 매체의 통제, 북한 통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데 폐쇄성을 강조하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 주제는 북의 경제적 어려움과 배고픔에 대한 것들이다.

결국 탈북자들은 탈북이전에 겪었던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경제적 낙후성을 국가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트라우마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 4.3. 사회폭력트라우마와 안정의 화구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에게 북에서의 국가폭력트라우마는 과거의 이야기로 존재하므로 그 상처가 다소 희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국내의 적응이라는 절대적인 난관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어 여기서 가해지는 외상을 현재적으로 감내하는 실정이다.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후 겪는 문화적 충격은 한국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불가할 수 있다. 초창기 탈북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심리적 문제를 고민한 전우택교수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과 문화적 격차가 60년 이상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탈북자들은 지극히 폐쇄적인 북 체제 속에서 1945년 해방 시기와 비슷한 정치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탈북을 계기로 2000년대의 한국으로 급작스럽게 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말이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입국하여 한국국가로부터 받는 외상을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아 보인다.

<표 16>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체)	소득수준(만원)					남한 입국연도		
		100 미만	100 이상-200 미만	200 이상-300 미만	300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36)	(26)	(9)	(1)	(37)	(29)	(77)	(3)
매우 만족	21.1	38.9	15.4	11.1		10.8	10.3	24.7	33.3
만족	56.9	47.2	73.1	22.2		64.9	55.2	59.7	
불만족	17.4	11.1	7.7	44.4	100.0	21.6	27.6	13.0	33.3
매우 불만족	3.7		3.8	22.2		2.7	6.9	1.3	33.3
무응답	.9	2.8						1.3	

탈북자의 80% 정도는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연령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소득자나 입국연도가 2006년 이전인 경우에는 불만족의 비중이 큰 폭으로 역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대체로 국내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인데, 정착금 지급이나 임대주택 주선·생활비 지원 등에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월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과 2006년 이전 입국한 집단에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경제지원책 이외의 요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기초 생활 자체도 어려운 실정임으로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예측된다. 가령 안정적인 직업을 주선해 주기를 희망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국가폭력을 경험할 일을 거의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한국 주민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폭력

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설문에서 이들이 남한 주민으로부터 받은 외상을 물었다.

<표 17> 나는 남한 동포들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있다	59.6	100.0	41.5	72.2	67.9	72.7	62.5	100.0	82.8	53.2	
없다	39.4		<b>56.1</b>	27.8	32.1	27.3	37.5		17.2	<b>45.5</b>	100.0
무응답	.9		2.4							1.3	

탈북자의 60% 정도가 남한 주민으로부터 차별이나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40%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런 경향은 전체 변별항목에서 비교적 고르게 산출되었다. 그런데 20대와 2006년 이후 입국한 집단은 이외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대의 경우는 대학생 신분이거나 교회 등에서 남한 주민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계층이므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진솔하게 교류하는 가운데 외상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이후 입국자의 경우는 아직까지 남한 주민들의 시각까지를 고민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고 진단할 수 있겠다.

<표 18> 남한주민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전체)	나이							남한 입국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65)	(2)	(17)	(13)	(19)	(8)	(5)	(1)	(24)	(41)	(0)
무관심	9.2		17.6	7.7	10.5				16.7	4.9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24.6		17.6	30.8	10.5	37.5	80.0		16.7	29.3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	<b>35.4</b>	50.0	<b>41.2</b>	23.1	36.8	50.0		100.0	<b>41.7</b>	31.7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태도	<b>30.8</b>	50.0	23.5	38.5	42.1	12.5	20.0		25.0	34.1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체험하는 사회폭력은 우월감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35.4%, 편견과 선입견을 30.8%,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를 24.6%로 꼽고 있어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90% 이상이 탈북자를 대하는 남한주민들의 태도는 변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높은 비율을 보인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는 남한 주민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오히려 탈북자들이 가진 자격지심과 더 큰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생활하던 탈북자의 의식이 빈부 격차나 학력 격차가 계층의식으로 작용하는 남한 주민들의 의식을 이해하지 못한 원인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외상은 탈북자들의 민족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국내 입국 후 동일민족으로서의 리비도가 좌절되는 가운데 발현되는 트라우마로 진단할 수 있겠다.

## 5. 탈북자의 트라우마 특징과 치유 방안

탈북자의 트라우마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북에서 거주할 때에는 역사적 트라우마로서 식민트라우마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고, 국내 입국 후에는 탈북트라우마를 강하게 간직하는 이원적 구조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의 트라우마는 향후 시간이 지나면 분단트라우마로 전이되면서 한국인의 그것으로 일반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탈북자 집단 내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초창기 탈북자들의 경우는 제3국의 체류 경험 속에서 여타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이 간직한 트라우마와 유사한 양상들도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 이산이 아닌 삶의 터전 이산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체 코리언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존재들이며, 그 트라우마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특징과 심각함을 지닌다. 이에 여느 코리언들보다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며 그 치유 방안에 대한 고민도 절박하다고 하겠다.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방안을 고민해 보면, 우선 역사적 트라우마로서 식민트라우마는 북에서 자리 잡은 남한보다 강경한 식민트라우마 극복 의지가 탈북 후 남한 정착 과정에서 보수화하고 회색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북한주민으로서 간직한 식민트라우마 극복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탈북트라우마는 대체로 이중성을 띤다. 남한 주민들을 대할 때 스스로를 감추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트라우마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진솔하게 남한 주민을 대하고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정착을 시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생활 습관을 남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인의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

-한국인 대상 민족공통성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강미정(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인의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양상을 설문 조사 결과에서 탐색하여 정리하는 데 있다.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는 한국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속하면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의 삶에서 문제적으로 남아 있고 유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식민 트라우마에 관하여 차승기는 “1945년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는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존재했던 국가부채 상태에 따른 수치와 원한 같은 복합적인 억압감정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윗세대 또는 일반명사로서의 일본/일본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종종 표출되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식민지적 과거에 대한 상상과 연결된 분노의 감정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이고 구조적인 차원,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트라우마적 증후로 나타난다는데 있다.”<sup>1)</sup> 하면서 넓은 의미의 식민지 트라우마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식민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연구에는 제일 동포의 문학이나 문화 현상,<sup>2)</sup> 재중 동포의 문학이나 문화 현상,<sup>3)</sup> 분단문학,<sup>4)</sup> 구술체험담<sup>5)</sup> 등을 중심으로 분단 트라우마 및 식민 트라우마의 현상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논의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은 분단 트라우마 및 식민 트라우마가 우리 역사 속에서 수난의 서사를 강조해왔고 그에 따른 잠재적 피해의식의 확산을 예상케 하는 것이다.

또한 식민 트라우마나 분단 트라우마는 통일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남북한 정서적 공감대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남북 주민들 간의 정서적 교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발표한 엄태완에 따르면 “남북한 통합과정에서는 빈곤과 실업, 그리고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우리보다 앞선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이전에 동서독인들이 서로 우호적 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점차 서로 불편해지면서 심지어 적대적 감정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북주민들 간의 정서적 교감은 많지 않으며 우호적인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sup>6)</sup>라고 하며 남북주민들간의 정서적 교감이 한산하고 그에 따라 우호성이 약한 현실이 남북한 통합과정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병수는 분단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의 기억이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문화적으로 획득된 기억으로 자리 잡은 채 현재진형형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분단 트라우마는 결과적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의 내면에 상처로 자리 잡아 상호적대성을 키우고, 중국에는 끊임없는 적대와 경쟁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내재화되고 있는 것이다.<sup>7)</sup>

1) 차승기, 「식민지 트라우마의 현재성」, 『황해문화』, 2010, 14쪽.

2) 김태만, 「제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영화 <우리에게겐 원래 국가가 없었다>, <박치기>,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25집, 2010, 371~387면.

3) 김태만, 「재중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 『중국현대문학』제54집

4) 임현영은 강만길의 역사학적 명제를 문학사에 적용시켜 해방 이후의 문학을 분단시대의 문학이라 명명하면서 분단시대의 문학을 대상으로 분단을 야기하는 모든 민족정서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문학사를 (1)동란 중의 문학적 활동기, (2)전후세대의 등장, (3)4.19세대의 심화과정, (4)70년대의 문학으로 나누어 살핀 바 있다.(임현영,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204~205면. 유임하, 『분단시대의 문학』에서 재인용.)

5) 김중곤,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논총』 51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6) 엄태완, 남북통합 과정의 심리사회적 위기 분석-북한이탈주민의 생애위기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북한학연구』제7권 제2호, 2009.

이와 같이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에 관심을 기울였던 선행 연구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처의 현현과 그로 인한 소통과 단절의 위험을 수차례 강조해온 바 있다. 그런데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가 그토록 위험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그 트라우마들의 모습은 어떤 양상인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2011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실시한 민족공통성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트라우마가 구체적으로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필자가 관심을 기울인 결과물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족공통 설문지 중에서도 특히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대한 답변 결과이다. 그 결과들은 10대에서 60대 이상에 해당되는 남한 지역 거주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여러 연령대에 고르게 답변을 하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이 이미 문항 개발 과정에서부터 고려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항들에 대한 답변은 크게 무리 하지 않고도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에 관한 논의의 자료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민족공통성 설문 조사의 내용과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에 관련될 수 있는 문항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식민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정리해본다. 4장에서는 분단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면서 동시에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 2. 민족공통성 설문 조사

2011년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민족공통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정체성, 통일의식, 트라우마, 생활문화 등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인을 위한 민족공통성 설문지는 총 97개 문항이 마련되었다. 한국인을 위한 민족공통성 설문 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01명을 대상으로 201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직접 대면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1 연령별 남녀 비율

	전체	남	여	무응답
10대	12.6	10.6	14.1	0
20대	20.2	20.3	19.8	100.0
30대	20.8	18.0	23.0	
40대	20.4	22.1	19.1	
50대	11.2	12.0	10.6	
60대이상	15.0	17.1	13.4	

표-1에서 드러나듯이 총 501명의 응답자들은 10대와 60대까지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도시 중심으로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주지역과 도농 균형은 맞추기는 어려웠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문 조사가 가지는 의의는 한국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살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객관적 문항이 구성되었다는 데 있다. 또한 직접 대면 조사방식이면서 설문지 자체는 객관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쉽사리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점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의 심층적인 생각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정량적 방법 일반이 갖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적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객관적 데이터들의 상호모순성을 해소하는 2단계 심층면담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7)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성격과 윤리성 고찰」, 『시대와 철학』, 2011, 161면 참고.

8) 총 501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도시가 477명(95.2%), 농촌이 19명(3.8%), 무응답 5명(1.0%) 한국사회의 직업, 소득수준, 학력별 실태 또한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표본추출이 무작위여서 한국 사회의 실태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심층 면담 조사 이전에 특정 경향성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으로 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료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의 현상에 대한 문항별 분석을 하기 전에 각 트라우마별로 관련 문항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문항 중에서 한국인의 식민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항들을 표로 정리해 본다.

표-2 식민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항

문항 번호	질문 내용
44	역사적으로 한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45	한반도에서 일제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6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47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48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더 싫다.
49	일본인 때문에 고생했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값이주고 싶다.
51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할 때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52	일본과 축구 경기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일본이 지길 바란다.
53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된 게 억울하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족공동성 설문 조사의 총 97개 문항 중에서 한국인의 식민 트라우마를 진단하기 위하여 설정된 문항은 모두 10개 문항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문항들은 주로 한민족 수난 역사의 흐름,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에 대한 인식, 어두운 과거사 회복을 위한 현재의 노력, 일본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 일본과의 경쟁구도와 피해의식의 정도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 한편으로 이 10개 문항 이외에도 일제식민지의 잔재와 관련한 다른 문항들이 함께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국인의 분단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항을 정리한 표이다.

표-3 분단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항

문항 번호	질문 내용
27	현재 분단이 지속되는데 굳이 한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입니까?
28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0	남과 북의 통일이 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한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2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3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4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5	한반도의 분단과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
56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한국인의 분단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항은 총 97개 문항 중에서 분단 트라우마와 분명한 관련성을 가진 54번, 55번, 56번 등의 3개 문항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문항들 이외에도 통일의식이나 분단의 책임여부에 관한 경우로 다른 문항들도 함께 읽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위 표에는 모두 10개의 문항을 소개하였다.

### 3. 식민 트라우마

여기에서는 한국인들의 식민 트라우마를 살필 수 있는 문항들과 그에 대한 선택결과표를 제시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경위에 대한 분석을 해본다. 아래 문항 및 표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세대 간 선택의 유사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한국인 대상의 민족공동성 설문조사결과 중에서 필자가 식민 트라우마와 관련된다고 상정한 문항들의 경우 10대로부터 60대에 이르는 세대 간에 큰 편차 없이 선택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표-4 :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b>일본</b>	<b>81.2%</b>	<b>82.5%</b>	<b>83.2%</b>	<b>82.7%</b>	<b>83.3%</b>	<b>80.4%</b>	<b>73.3%</b>
미국	4.8%	4.8%	5.9%	7.7%	2.9%	5.4%	1.3%
소련	3.2%	6.3%	2.0%	1.9%	1.0%	5.4%	5.3%
중국	9.0%	4.8%	5.9%	7.7%	10.8%	7.1%	<b>17.3%</b>
중복응답	.6%				1.0%		2.7%
무응답	1.2%	1.6%	3.0%		1.0%	1.8%	

위 표-4를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준 나라는 일본이다. 압도적인 수치로 일본임을 선택한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침해의 역사와 더불어 여전히 일본을 가해자로 생각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가해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9)</sup>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시대는 미국·소련·중국 등 외세의 개입이 이루어졌던 전쟁기보다 이전에 체험된 것이므로 시기적으로는 더 앞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가해국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는 참혹한 전쟁 경험보다 더 강력한 식민 트라우마의 일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이외에 또 다른 가해국으로 중국이 인지되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표-5 :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남북 분단	33.7%	36.5%	26.7%	33.7%	38.2%	<b>32.1%</b>	<b>36.0%</b>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12.2%	7.9%	17.8%	12.5%	9.8%	10.7%	12.0%
경제적인 가난	5.8%	7.9%	3.0%	4.8%	3.9%	10.7%	8.0%
<b>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b>	<b>39.3%</b>	<b>41.3%</b>	<b>49.5%</b>	<b>39.4%</b>	<b>42.2%</b>	28.6%	28.0%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6.0%	4.8%	2.0%	8.7%	2.9%	14.3%	6.7%
중복응답	.4%	1.6%				1.8%	
무응답	2.6%		1.0%	1.0%	2.9%	1.8%	9.3%

일본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나라였음에 대한 것은 그 피해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다. 표-5를 보면 일본의 식민 상황이 우리에게 남긴 문제의 심각성은 전통문화에 대한 훼손과 단절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선택 경향이며, 50대와 60대는 남북 분단이 일본이 미친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 자세히 보면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과 남북분단에 대한 수치는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심각성은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과 남북분단’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되어 우리 현실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는 견해는 우리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자랑스럽다는 견해와

9) 이처럼 일본을 최악의 가해국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탈북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sup>10)</sup> 그러니까 일본이 남긴 피해상황은 내면으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문화를 훼손시킨 데 있으며 외면적으로는 남북분단을 조장한 것에 있다는 것이다.

표-6 :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분단 극복과 통일	24.8%	<b>31.7%</b>	13.9%	26.0%	29.4%	26.8%	24.0%
자주적 외교	17.4%	14.3%	10.9%	21.2%	11.8%	19.6%	29.3%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	23.6%	22.2%	<b>38.6%</b>	24.0%	23.5%	16.1%	9.3%
북-일, 북-미 수교	1.6%		4.0%	1.0%	2.0%	1.8%	
<b>민족적 자존감의 회복</b>	<b>29.5%</b>	28.6%	28.7%	<b>26.9%</b>	<b>29.4%</b>	<b>33.9%</b>	<b>32.0%</b>
중복응답	1.2%	1.6%		1.0%	1.0%	1.8%	2.7%
무응답	2.0%	1.6%	4.0%		2.9%		2.7%

일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전통문화의 단절과 훼손,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면 일제 식민지 지배 청산을 위한 과제는 전통문화의 회복과 통일에 대한 희망의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표-6은 바로 그에 대한 경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표-6과 표-5에서 10대와 60대의 선택을 대비해보면 10대와 60대 간의 선택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표-5에서 '전통문화의 단절과 훼손'을 선택했던 10대들이 표-6에서는 '분단극복과 통일'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표-5에서 '남북 분단'을 선택했던 60대들이 표-6에서는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선택하여 '전통 문화의 단절'을 극복하려는 연장선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보다도 10대와 60대를 비교하여 살핀 이유는 두 연령대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크지만 그 선택에 있어 유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표-7 : 일본인 때문에 고생했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결코 용서할 수 없다	19.6%	25.4%	18.8%	14.4%	22.5%	12.5%	24.0%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	27.5%	30.2%	25.7%	25.0%	25.5%	37.5%	26.7%
<b>용서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b>	<b>48.5%</b>	<b>42.9%</b>	<b>50.5%</b>	<b>58.7%</b>	<b>49.0%</b>	<b>42.9%</b>	<b>40.0%</b>
불행한 과거이므로 잊자	3.8%	1.6%	4.0%	1.9%	2.9%	5.4%	8.0%
중복응답	.4%					1.8%	1.3%
무응답	.2%		1.0%				

표-7의 질문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하여 현대인들에게 그 상황의 분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위에서 드러나듯이 대부분 '용서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1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40% 이상의 수치를 보이면서 집중되어 있다. 또 한편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의 경우는 10대, 50대, 60대에게서 20% 이상의 선택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제에 대한 강한 분노는 세대 간의 격차를 뛰어 넘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문화에 크게 열광하는 10대와 일본 제품을 더 많은 신뢰를 보이는 60대에게서 이렇게 일본에 대한 적대 의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용서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진정으로 사죄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순으로 선택의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특이하다. '불행한 과거이므로 잊자'는 항목은 극히 미미하면서 일제에 대한 분노의 흐름이 세 개의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10) 민족공통성 설문지에서 내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1)우리는 찬란한 문화(한글, 옷, 음식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3)월드컵 4강 신화, 한강기적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4)약소민족이지만 민족적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은 (1)우리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집중되어 있다.(민족공통성 설문지에서는 이것은 9번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세 개의 선택항 중에서 그래도 중도적으로 보이는 ‘용서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가 많은 수치를 보인 것은 속마음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를 생각하면서도 선택에서는 조금 수위를 낮춘 것이 아닐까하는 측면도 보인다. 따라서 일본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과거는 생각만 하여도 분노가 자극되는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8 :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값아주고 싶다.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매우 그렇다	21.8%	28.6%	21.8%	15.4%	24.5%	21.4%	21.3%
<b>조금 그렇다</b>	<b>45.9%</b>	<b>49.2%</b>	<b>30.7%</b>	<b>45.2%</b>	<b>50.0%</b>	<b>48.2%</b>	<b>57.3%</b>
그렇지 않다	23.2%	12.7%	33.7%	28.8%	17.6%	26.8%	14.7%
전혀 그렇지 않다	8.6%	6.3%	12.9%	10.6%	7.8%	3.6%	6.7%
무응답	.6%	3.2%	1.0%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갚아주고 싶다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조금 그렇다’를 선택하여 조금은 되값아주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현재 많은 선택이 이루어진 것은 ‘조금 그렇다’이지만 되값아주고 싶은 경향이 매우 강한 것도 적지 않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처 받은 역사를 복수로 처리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다짐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되값아주고 싶기에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라는 두 가지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1)

표-9 : 일본과 축구경기를 할 때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b>그렇다</b>	<b>80.4%</b>	<b>87.3%</b>	<b>74.3%</b>	<b>78.8%</b>	<b>85.3%</b>	<b>78.6%</b>	<b>80.0%</b>
그렇지 않다	19.4%	12.7%	24.8%	21.2%	14.7%	21.4%	20.0%
무응답	.2%		1.0%				

앞서 표-8에서 일본이 끼친 피해에 대하여 은근히 드러났던 되값아줌에 대한 소망은 표-9에서는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것은 일본이 북한과 축구 경기를 하든, 한국과 축구경기를 하든 반드시 이겨야한다는 수치가 87.3%까지 이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큼은 일본은 적대적인 존재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일본과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면 이번에는 승리로 이끌어 과거의 열패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과 연결 지을 수도 있다.

표-10 : 일본과 축구 경기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일본이 지길 바란다.

11) 이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식민 트라우마에 관련된 문항 중에서 특히 48번 문항이다.  
48번 문항 :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더 싫다.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매우 그렇다	27.7%	31.7%	23.8%	24.0%	36.3%	23.2%	26.7%
<b>약간 그렇다</b>	<b>46.5%</b>	<b>39.7%</b>	<b>32.7%</b>	<b>51.0%</b>	<b>50.0%</b>	<b>55.4%</b>	<b>53.3%</b>
그렇지 않다	19.0%	15.9%	31.7%	22.1%	11.8%	19.6%	9.3%
전혀 그렇지 않다	6.0%	9.5%	10.9%	2.9%	2.0%	1.8%	9.3%
무응답	.8%	3.2%	1.0%				1.3%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b>그렇다</b>	<b>57.7%</b>	<b>68.3%</b>	<b>55.4%</b>	<b>54.8%</b>	<b>67.6%</b>	<b>55.4%</b>	44.0%
그렇지 않다	41.9%	31.7%	43.6%	45.2%	32.4%	44.6%	<b>54.7%</b>
무응답	.4%		1.0%				1.3%

앞서 표-9에서 일본이 북한이나 한국과 축구경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한다는 경쟁심이 식민에 대한 과거의 열패감과 관련될 수 있음을 짐작했다면, 표-10의 선택 결과는 그러한 짐작에 힘을 실어 준다. 만일 일본 자체에 대한 증오라면 일본은 어느 나라와의 경기에서든 저야만 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표-10에 나타나는 결과는 일본이 북한이나 한국과의 축구경기에서는 패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른 나라와 대적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우리들의 경쟁 대상이 될 경우에만 적대적인 존재가 되고 있음을 생각해 한다.<sup>12)</sup>

표-11 : 한반도에서 일제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b>전혀 청산되지 않았다</b>	<b>19.0%</b>	<b>20.6%</b>	<b>22.8%</b>	<b>20.2%</b>	<b>17.6%</b>	<b>14.3%</b>	<b>16.0%</b>
<b>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b>	<b>64.3%</b>	<b>66.7%</b>	<b>61.4%</b>	<b>67.3%</b>	<b>65.7%</b>	<b>55.4%</b>	<b>66.7%</b>
거의 다 청산되었다	14.6%	11.1%	12.9%	11.5%	13.7%	30.4%	13.3%
완전히 청산되었다	1.4%	1.6%	2.0%	1.0%	1.0%		2.7%
무응답	.8%		1.0%		2.0%		1.3%

위 표-11에서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일제식민지 잔재의 청산 여부에 따른 설문결과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도 ‘거의 다 청산되었다’보다 선택의 수치가 웃돌고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내심으로는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고 여기면서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보다 완곡해 보이는 답변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여길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한국인들은 1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최소 50%에서 최고 66.7%에 이르기까지 일본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에 기울어져 있는데 반하여,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 주민들 중에서 50대의 경우는 ‘거의 다 청산되었다’를 선택한 경우도 54.5% 정도로 나타나기도 한다.<sup>13)</sup> 이러한 차이를 보아도<sup>14)</sup>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에

12) 이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식민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항 중에서도 다음 53번 문항이다.

53번 문항 :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게 억울하다.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그렇다	39.3%	34.9%	31.7%	45.2%	45.1%	41.1%	36.0%
<b>아니다</b>	<b>59.7%</b>	<b>65.1%</b>	<b>67.3%</b>	<b>54.8%</b>	<b>54.9%</b>	<b>57.1%</b>	<b>60.0%</b>
무응답	1.0%		1.0%			1.8%	4.0%

13) 2011년 민족공동성 설문조사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는 ‘거의 다 청산되었다’를 선택한 경우도 꽤 많은 편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의 67.9%(전혀 청산되지 않았다 10.1%+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57.8%)는 일제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

	한반도에서 일제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국연도		
	(전체)	나이							무응답	2006년이전	2006년이후
사례수	(109)	(2)	(41)	(18)	(28)	(11)	(8)	(1)	(29)	(77)	(3)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	10.1%		17.1%		3.6%	18.2%	12.5%		3.4%	11.7%	33.3%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57.8%	100.0%	53.7%	72.2%	64.3%	27.3%	50.0%	100.0%	48.3%	61.0%	66.7%
거의 다 청산되었다	29.4%		24.4%	27.8%	28.6%	<b>54.5%</b>	37.5%		44.8%	24.7%	
완전히 청산되었다	2.8%		4.9%		3.6%				3.4%	2.6%	

서 식민 트라우마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한반도가 일제강점기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38도선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한 지역은 미군이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당국이 발표한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38도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연합군에게 항복하라는 포고령이 없었거나 그 포고령이 한반도 전 지역을 포괄하는 내용이었다면 한반도의 정치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sup>15)</sup>

분단의 책임에 소련과 미국의 동서냉전의 영향력도 무시할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답한 경우가 많은 것은 억압당한 시절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더 강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억은 오랜 억압의 경험이 유전시키면서 여전히 적대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2012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족공동성 설문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경쟁과 분노에 관한 경향성이 높게 나온 결과는 2010년의 대학생들에게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설문조사와도 비교될 수 있다. 2010년에 정진아가 건국대학교 학생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일본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그렇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일본인의 성실한 국민성과 경제와 문화의 선진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응답자의 71.4%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기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sup>16)</sup> 그리고 정진아는 대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제국주의적 수탈에 대한 반감, 일본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호감, 현대 일본인의 정치와 군사력 등에 대한 무지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감정 상태의 발생이 과거의 적이었던 일본이 한일협정 이후 오늘날의 동맹으로 전환되는 역사와 관련된다고 보았다.<sup>17)</sup> 정진아의 이러한 견해는 탁월하며 동시에 위에서 살펴본 식민 트라우마의 이중적인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따라잡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사로 인한 분노를 자극하는 존재가 일본이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석연치 않은 감정이 식민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 4. 분단 트라우마

다음에서는 한국인들의 분단 트라우마를 살필 수 있는 문항들과 그에 대한 선택결과표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살피기로 한다. 민족공동성 설문조사 문항 중에서 분단 트라우마와 특별히 관련된 문항들은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입은 피해와 상처, 그리고 미래의 걸림돌에 대한 의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8)</sup>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문항과 함께 보아야 할 것은 통일을 가로 막는 책임의 여부, 아직도 통일이 되지 못하는 이유,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해야 할 사안, 통일에 대한 전망 등에 관한 문항들이다.<sup>19)</sup> 그리고 이러한 문항들

14) 이창식, 김윤정, 「N세대가 지각한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9권 제3호, 2002, 168면. “민족통일연구원(1995)조사에 의하면 남북한간의 의식구조의 차이는 89.0%가 언어에서 의식구조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여가생활(82.1%), 직장생활(80.8%), 풍습(71.7%), 가족생활(69.6%)에서 의식구조의 차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공보처(1996)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인과 북한 주민의 의식구조의 차이를 조사한 바에 의함녀 94.6%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서 의식구조의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88.2%는 생활방식에서, 65.8%는 언어생활에서 의식구조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의식구조의 차이는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지각하였다.”

15) 유도진, 「분단의 의미와 통일을 대비한 남한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아태연구』 4집,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1997, 215~247면.

16) 정진아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2010년 8월 30일~9월3일까지 건국대학교 학생 524명을 대상으로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대학생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관)-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진아, 「한일협정 후 한국 지식인의 일본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 92면 참고.

17) 정진아, 「한일협정 후 한국 지식인의 일본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 92~93면 참고.

18) 이에 해당되는 문항은 54번, 55번, 56번 등 3개 문항으로 2장의 표-3에서 정리한 바 있다.

19) 이에 해당되는 문항은 27번, 28번, 30번, 40번, 41번, 42번, 43번 등 7개 문항으로 2장의 표-3에서 정리한 바 있다.



에 대한 선택 결과는 식민 트라우마 관련 문항의 결과와 유사하게 1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000년에 집단별 통일의식의 특성을 살핀 논의와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00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단별 통일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했던 함인회·한정자에 따르면<sup>20)</sup> 당시 집단별 통일의식의 특성 중에서 청소년의 경우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열망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고, 통일을 원하는 이유와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분 보다는 실리를 찾는 경향이 강했다고 한다. 또한 2000년 당시 설문에 응하였던 386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과 다르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희망이 매우 높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386세대가 보여주었던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것을 기대한 바 있다.

그런데 2012년에 시행된 민족공통성 설문조사의 경우 2000년 당시의 386세대에 해당되었고 지금은 40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10대나 혹은 60대와 비교할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 통일에 관심이 적었던 1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00년 당시에 통일을 낙관하였던 30대는 이제는 유보적인 형태로 문항에 답변을 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들을 살펴면서 보기로 한다.

표-12 :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b>이산의 고통</b>	34.1%	19.0%	22.8%	32.7%	<b>49.0%</b>	33.9%	<b>44.0%</b>
외세에 의한 민족자존의 손상	11.6%	11.1%	15.8%	17.3%	5.9%	12.5%	5.3%
민주주의의 왜곡과 발전저해	8.2%	3.2%	12.9%	10.6%	9.8%	7.1%	1.3%
경제발전의 저해	5.8%	11.1%	6.9%	5.8%	3.9%	3.6%	4.0%
<b>남북의 적대와 긴장</b>	<b>37.3%</b>	<b>52.4%</b>	<b>40.6%</b>	<b>32.7%</b>	31.4%	35.7%	36.0%
중복응답	2.4%	3.2%				7.1%	8.0%
무응답	.6%		1.0%	1.0%			1.3%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큰 상처는 ‘남북의 적대와 긴장’이다. 이것은 이미 짐작하는 바이며, 분단의 현재 상황의 체감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40대와 60대는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산의 고통’ 또한 분단의 상처로 들고 있다. 그리고 ‘외세에 의한 민족자존의 손상’은 별로 선택하지 않아 분단의 상처에서 주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것은 식민 트라우마로 인하여 민족 주체성의 손상이 크다고 여겼던 경우와 함께 볼 때 차이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분단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는 ‘남북의 적대와 긴장’으로부터 야기되는 불안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식민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는 ‘민족 자존감의 상실’로부터 야기되는 분노와<sup>21)</sup>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표-13 :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b>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b>	<b>93.4%</b>	<b>93.7%</b>	<b>90.1%</b>	<b>92.3%</b>	<b>97.1%</b>	<b>96.4%</b>	<b>92.0%</b>
다소 피해를 입었다	5.6%	4.8%	7.9%	7.7%	2.9%	1.8%	6.7%
피해를 입지 않았다	.4%	1.6%				1.8%	
무응답	.6%		2.0%				1.3%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20) 함인회, 한정자, 「집단별 통일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5집,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2000, 137~165면.

21) 이에 대한 것은 표-5와 표-6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것이다. 그렇기에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93.4%에 해당되는 선택율을 보이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이러한 문항은 지나치게 확실한 것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 문항은 뒤 이은 문항들과 함께 보아야 그 의미에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표-14 :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b>그렇다</b>	<b>88.2%</b>	<b>82.5%</b>	<b>88.1%</b>	<b>84.6%</b>	<b>91.2%</b>	<b>92.9%</b>	<b>90.7%</b>
아니다	11.4%	15.9%	10.9%	15.4%	8.8%	7.1%	9.3%
무응답	.4%	1.6%	1.0%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의 과거 역사적 상흔으로 인한 피해의식의 심각성이 우리 미래의 행보에 발목을 잡았음은 표-14에서 드러난다. 분단이 일어난 것은 과거이지만 분단 상황은 현재형이다. 그 현재가 과거에 입혔던 피해만큼이나 여전하고 그 추세는 불안한 형편이다. 표-14에서 88.2%에 달하는 수치는 우리 민족의 발전 저해요소가 분단 상황에서 어두운 미래를 보고 있는 인식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분단 상황 때문에 발전이 더딘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11.4%를 상회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 하나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경우를 생각조차 막는 것이 바로 분단 트라우마의 장악력이 아닌가 한다.

표-15 : 현재 분단이 지속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인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남한	9.6%	4.8%	9.9%	14.4%	9.8%	8.9%	6.7%
<b>북한</b>	<b>88.6%</b>	<b>92.1%</b>	<b>88.1%</b>	<b>85.6%</b>	<b>86.3%</b>	<b>91.1%</b>	<b>92.0%</b>
중복응답	.2%					1.0%	
무응답	1.6%	3.2%	2.0%			2.9%	1.3%

그렇다면 이렇게 분단이 끝날 듯 끝나지 않은 현상의 책임소지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에 대하여 한국인의 88.6%는 북한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 역시 남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9.6%의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어떤 현상의 책임 소지는 서로 비등하거나 아니면 내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하는 상식적인 혹은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맥락에 따른 견해가 남북한의 문제 앞에서는 미미해 보인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표-16 :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b>상호 신뢰성 회복</b>	<b>46.7%</b>	<b>30.2%</b>	<b>33.7%</b>	<b>41.3%</b>	<b>65.7%</b>	<b>55.4%</b>	<b>53.3%</b>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12.4%	9.5%	15.8%	20.2%	11.8%	5.4%	5.3%
정기적인 남북대화의 정착	12.0%	9.5%	10.9%	14.4%	4.9%	10.7%	<b>22.7%</b>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9.4%	19.0%	13.9%	3.8%	6.9%	10.7%	5.3%
<b>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b>	<b>18.6%</b>	<b>30.2%</b>	<b>23.8%</b>	<b>19.2%</b>	10.8%	<b>16.1%</b>	13.3%
중복응답	1.0%	1.6%	2.0%	1.0%		1.8%	

분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보는 견해 앞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이 해야만 하는 것이 ‘상호 신뢰성 회복’임은 서로 걸맞지 않는 쌍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치다는 생각에 따라 ‘상호 신뢰성’을 중요하게 선택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상호 신뢰성 회복’은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고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 자세’에 대한 선택 결과가 더 유의미해 보인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분단 이후 50여년이 지났음에도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문항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표-17 :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19.8%	22.2%	<b>22.8%</b>	20.2%	16.7%	12.5%	22.7%
<b>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b>	<b>25.0%</b>	<b>25.4%</b>	18.8%	<b>30.8%</b>	<b>26.5%</b>	<b>25.0%</b>	<b>22.7%</b>
남한이 미국편에서 북한을 봉쇄하기 때문에	3.0%	1.6%	4.0%	2.9%	2.9%	5.4%	1.3%
<b>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b>	<b>51.3%</b>	<b>47.6%</b>	<b>54.5%</b>	<b>45.2%</b>	<b>52.9%</b>	<b>57.1%</b>	<b>52.0%</b>
중복응답	.2%	1.6%					
무응답	.8%	1.6%		1.0%	1.0%		1.3%

분단이 지속되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단연 1순위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성을 회복’해야 통일을 향한 행보가 가능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의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데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 막기 때문에’도 중요한 선택항이 되고 있다. 표-16과 표-17에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은 아니지만 항상 그 다음 선택된 것은 ‘외세 열강’의 우리 민족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물론 이것도 사실 일어난 일이었거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당연히 선택되는 항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을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하여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과거로부터 주체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경험이 적은 탓에 우리의 주체성이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낮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억압이 우리의 행보를 가로 막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든다.<sup>22)</sup>

표-19 :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매우 그렇다.	30.9%	36.5%	34.7%	28.8%	37.3%	23.2%	21.3%
<b>그렇다.</b>	<b>58.5%</b>	<b>52.4%</b>	<b>50.5%</b>	<b>60.6%</b>	<b>52.0%</b>	<b>69.6%</b>	<b>72.0%</b>
그렇지 않다.	9.2%	11.1%	12.9%	10.6%	7.8%	5.4%	5.3%
무응답	1.4%		2.0%		2.9%	1.8%	1.3%

분단에 대한 불안은 남북통일이 되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위 표-19에서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30.9%와 ‘그렇다’를 선택한 58.5%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이 개인의 삶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결과와는 다른 수치가 나온다.

22) 여기에 다음 문항의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하는 문항은 그래도 북쪽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모습 중에서 긍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된다. 여기에 가장 많은 선택이 이루어진 것은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이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딱히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항목이 없는 탓이기도 하지만, 무응답이 아니라 주체성에 많은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남한보다는 북한이 독립적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폐쇄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만의 주체성과 맞물리기도 할 것이다.

37번 문항 :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b>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b>	<b>34.5%</b>	<b>27.0%</b>	<b>38.6%</b>	<b>33.7%</b>	<b>47.1%</b>	<b>33.9%</b>	<b>20.0%</b>
민족적 동포애	13.4%	22.2%	8.9%	18.3%	8.8%	14.3%	10.7%
평등 사회 건설 의지	8.0%	7.9%	9.9%	12.5%	6.9%		6.7%
집단주의	5.0%	3.2%	4.0%	2.9%	8.8%	5.4%	5.3%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25.3%	<b>36.5%</b>	33.7%	23.1%	18.6%	16.1%	24.0%
무응답	13.8%	3.2%	5.0%	9.6%	9.8%	30.4%	33.3%

표-20 : 남과 북의 통일이 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그렇다	37.1%	39.7%	35.6%	43.3%	41.2%	32.1%	26.7%
<b>아니다</b>	<b>61.5%</b>	<b>58.7%</b>	<b>63.4%</b>	<b>56.7%</b>	<b>56.9%</b>	<b>66.1%</b>	<b>70.7%</b>
무응답	1.4%	1.6%	1.0%		2.0%	1.8%	2.7%

분단으로 인한 불안이 나의 삶과 우리 민족의 미래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88.2%로 높지만<sup>23)</sup>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는 그리 높지 않다. 표-20에 나타나듯이 61.5%가 개인의 삶에 대하여 기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도 68.7%가 어두울 것이라고 보고, 그 수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1%만이 통일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한다.<sup>24)</sup>

이와 같이 분단 트라우마 관련 문항들에서 찾게 되는 현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개인적인 삶의 풍요로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암울한 전망을 하는 것은<sup>25)</sup> 식민 트라우마로부터 침해 받은 민족주체성에 대한 침해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침해되었던 과거는 청산되지 않고 경쟁심과 분노로 모습을 바꾼 채로 남아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분노는 분단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과 흑여 통일이 되더라도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비관적 미래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이 글을 요약하기 앞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하여 논의했던 라카프라의 견해를 들어본다. 전진성에 따르면 “라카프라는 트라우마 극복의 방식으로 “공감(empathy)”의 해법을 제시한다...라카프라가 말하는 공감은 타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질감을 가진 채로 이어지는 동일시이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같은 부류에 넣고 함께 가려는 시도인 것이다. 트라우마의 극복은 이러한 공감의 실천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26)</sup>

또한 이병수는 윤리적 감수성 즉, 고통을 호소하는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는 것을 통해 분단 트라우마의 극복과 치유의 방향이 열릴 것이라 전망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응답은 라카프라가 강조한 공감

23) 표-15를 참고한다.

24) 표-21 : 한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밝다	30.1%	22.2%	34.7%	26.0%	<b>42.2%</b>	33.9%	17.3%
<b>어둡다</b>	<b>68.7%</b>	<b>74.6%</b>	<b>64.4%</b>	<b>73.1%</b>	<b>57.8%</b>	<b>66.1%</b>	<b>80.0%</b>
무응답	1.2%	3.2%	1.0%	1.0%			2.7%

25) 한국사회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인 「북한사회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조사-전후세대의 북한사회 인식은 기대치 이하」에서는 통일한국의 모습에 대하여 통일이후 더 심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20.9%이며, 혼란 극복후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50.5%이며, 세계열강진입이 27.8%에 해당된다. 이 자료와 민족공동성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민족공동성 설문조사에서 통일전망의 어두운 정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통일전망에 대한 답변이 밝다, 어둡다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후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치우친 답변이 나왔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6) 전진성, 「트라우마, 내러티브, 정체성-20세기 전쟁기념의 문화사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역사학보』 제193집. “라카프라가 트라우마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질감을 띤 동일시를 통해서이며, 그것이 라카프라가 선호하는 공감이라는 개념이기도 하다. 공감은 타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자처하지 않고, 역사는 희생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입장에 설 수 없다. 라카프라는 공감을 동일시로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감적 불안정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과 같은 것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그 공감은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일시를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을 나의 방식대로 바꾸려고 고집하지 않은 채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sup>27)</sup>

이처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공감의 실천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민족공통성 설문조사에서 10대에서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격차도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의 양상을 지닌 것은 한편으로 다행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행이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따라 선택의 폭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세대 간에는 이질성으로 인한 분화보다는 동질성에 따른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불행해 보이는 이유는 그 결속력이 한국인의 식민 및 분단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불안과 경쟁 그리고 열패감은 타인을 나의 그림자와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조련케 하려는 욕망과 결부되면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확산될지 모른다. 이를테면 북한의 개방성을 기대하면서도 그러한 북한과의 통일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하여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앞서 말한 라카프라식의 공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한쪽으로는 현재의 대북봉쇄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sup>28)</sup> 다른 한쪽으로는 그들이 나의 구역 혹은 영역 속에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것도 긍정적인 균형감각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은 가장자리에는 전쟁 불안과<sup>29)</sup> 비판적 미래를 조장하는 분단 트라우마가 도사리게 될 것이다. 그 분단 트라우마의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경쟁과 열패감을 부추기는 식민 트라우마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이 민족공통성 설문 조사 결과로부터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혀보고자 했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와 같은 식민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의식으로 옮겨 놓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그 단계에 도달해야만 정서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현실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이다.

27)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성격과 윤리성 고찰」, 『시대와 철학』, 2011, 161면 참고.

28) 32번 문항 : 현재 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01)	(63)	(101)	(104)	(102)	(56)	(75)
매우 그렇다	3.8%	6.3%	1.0%	2.9%	3.9%	5.4%	5.3%
그렇다	20.6%	15.9%	19.8%	13.5%	17.6%	26.8%	34.7%
<b>그렇지 않다</b>	<b>57.9%</b>	<b>63.5%</b>	<b>60.4%</b>	<b>58.7%</b>	<b>59.8%</b>	<b>51.8%</b>	<b>50.7%</b>
매우 그렇지 않다	16.2%	14.3%	17.8%	24.0%	16.7%	12.5%	6.7%
무응답	1.6%		1.0%	1.0%	2.0%	3.6%	2.7%

29) 2번 문항 : 통일한반도하고 선택한 이유는?(조건문항)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117)	(18)	(22)	(34)	(26)	(11)	(6)
단일민족이 같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	11.1%	5.6%	9.1%	11.8%	11.5%	18.2%	16.7%
우리민족이 약소국 서로움을 극복하고 강대국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	21.4%	16.7%	27.3%	26.5%	23.1%		16.7%
이산가족 등 분단이 초래한 슬한 고통이 극복되기를 바라기 때문	15.4%	11.1%	22.7%	11.8%	7.7%	36.4%	16.7%
<b>전쟁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b>	<b>49.6%</b>	<b>61.1%</b>	<b>36.4%</b>	<b>50.0%</b>	<b>53.8%</b>	<b>45.5%</b>	<b>50.0%</b>
중복응답	1.7%		4.5%		3.8%		
무응답	.9%	5.6%					

참고문헌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7.

김중근,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논총』 51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김태만, 「재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영화 <우리에게 원래 국가가 없었다>, <박치기>,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25집, 2010, 371~387면.

김태만, 「재중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 『중국현대문학』제54집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이재승, 『국가범죄』

이창식, 김윤정, 「N세대가 지각한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제9권 제3호, 2002

임현영,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임현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 트라우마』, 선인, 2011.

차승기, 「식민지 트라우마의 현재성」, 『황해문화』, 2010

## 제2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

제3발표 : 잊혀진 디아스포라, 고려인의 역사적 트라우마

박재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제4발표 : 재일 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과 그 특징

나지영(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종합토론

배덕호(지구촌동포연대 대표),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 잊혀진 디아스포라, 고려인의 역사적 트라우마

박재인(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1. 들어가며 :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내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한국인들의 러시아 이주 역사는 18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sup>1)</sup> 이후 이주는 계속되어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20만 명에 달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가 시작된 1990년대에 와서야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디아스포라와 구별되는 이주 역사를 경험한 존재였다.

일제 식민지 약탈을 피해 농사지를 땅을 찾아 떠난 농업유민과 항일 독립 운동가들의 망명 이민은 연해주 등지에서 정착하였으나,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각지로 강제이주되는 역사적 경험을 한 바 있다. 이어 소련의 붕괴와 토착민주주의의 부활 등 그들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정착해온 장본인들이다. 사할린 고려인의 경우도 일본의 국가동원령에 의해 강제징용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어 일본의 패전으로 그들은 사할린에 버려지고, 한반도로의 귀환을 갈망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다.

이처럼 그들은 다양한 민족들과의 갈등, 급변하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경험하여 왔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거주국에 대한 동화 과정을 경험하여 왔다. 게다가 그들의 이주 역사에는 ‘강제 이주’라는 특별한 경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에 적실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려인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일본의 제국주의, 이산, 남북분단 등 역사적 경험에 대한 상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역사적 트라우마는 한반도의 근현대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대한제국의 국권박탈과 일제에 의한 식민화’라는 제국주의국가가 민족을 강탈함으로써 배제되고 억압된 극단적 사건(을사보호조약)과 같은 빅트라우마로서 ‘식민 트라우마’, 국가를 잃어버린 민족이 제국주의적 약탈정책과 식민화정책에 의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다른 민족과 함께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억압이 낳은 ‘이산 트라우마’, ‘8.15’ 이후 하나의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로 귀결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로부터 오는 ‘분단 트라우마’이다.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형성된 트라우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분석의 출발점으로 각각의 트라우마 어떠한 위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설정한 개념이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1. 조사대상자 (단위: %)

	전체	출생지					연령대						성별			국적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이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	여	무이답	러시아	기타	무이답
사례수	326	27	40	257	1	1	19	55	77	53	52	70	151	173	2	298	5	23
연해주	90.8	96.3	37.5	98.4	100.0	100.0	100.0	83.6	92.2	98.1	88.5	88.6	92.7	89.6	50.0	93.3	100.0	56.5
사할린	9.2	3.7	62.5	1.6				16.4	7.8	1.9	11.5	11.4	7.3	10.4	50.0	6.7		43.5

이 설문조사는 총 326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주 역사에 따라 구별할 수 있도록 연해주·사할린

1) 전병욱, 「고려인 강제 이주 원인과 민족 정체성」,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5집, 201~221쪽.

중앙아시아 등 출신지를 고려하여 대상을 설정하였는데, 각각 27명, 40명, 25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91.4%가 러시아 국적을 지니고 있었다.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 2. 고려인의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

### 2.1.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 트라우마

#### 1)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상처에 대한 인식 : 일제 강점이 남긴 문제, 남북 분단

고려인은 일제강점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그들이 이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의 심층에는 일제 식민에 대한 상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상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자신들의 이주 역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표 2. 8.15광복 이후 한반도로 귀국하지 않고 여기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거나 들었습니까?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여기가 조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16.9	11.1	27.5	16.0		
여기에 집과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48.5	3.3	10.0	56.4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7.1	3.7	17.5	5.4	100.0	
광복 후 한반도의 시국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3.1	7.4	2.5	2.7		
한반도에 삶의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7.7	25.9	7.5	5.4		100.0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4.0	3.7		4.7		
중복응답	2.1			2.7		
무응답	10.7	14.8	35.0	6.6		

그들은 러시아에 남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집과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48.5%) 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56.4%가 이 항목을 택하였기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연해주 출신의 경우는 25.9%가 한반도에 삶의 터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경우는 조선조부터 일제의 약탈이나 탄압을 피해 이주하여 왔다가 1937년 스탈린 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재이주 하였고, 척박한 새터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정착하기 위해 고투를 벌여온 장본인들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자신들의 이주 역사를 생계 문제와 관련지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현실지향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사할린 출신의 경우는 35%가 ‘무응답’을 택하였다. 일제의 강제 징용과 조국 귀환에 대한 조국의 방치 등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한 것에 비해, 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이주 역사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에 비해 ‘여기가 조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를 택한 경우가 10%이상 높아, 다른 고려인에 비해 사할린 출신의 경우 조국에 대한 인식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한국은 내정의 안정을 우선으로 하여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소련-북한-일본-한국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의 귀환 문제는 순조롭게 실행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그들과 한국과의 본격적인 소통은 1990년 12월 한소국교가 수립되면서 이루어졌다.<sup>2)</sup>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이미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희석화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뿌리, 조국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자

2) 김성중,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0집, 2006, 195~218쪽.

신들에 대한 처우가 소극적이었던 한반도에 대한 반감이 ‘무응답’으로 표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고려인의 경우 자신들의 이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생계문제와 무관심이나 무지, 두 양상으로 귀결되는 특징이 있다. 자신들의 이주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 역사적으로 한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총계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응답
일본	83.1	81.5	87.5	82.5	100.0	100.0
미국	8.3	3.7	5.0	9.3		
소련	3.4	3.7	5.0	3.1		
중국	0.6	3.7		0.4		
중복 응답	3.7	7.4	2.5	3.5		
무응답	0.9			1.2		

역사적으로 한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민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일본’(83.1%)을 지목하고 있었다. 출생지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일제 강점기에 초점이 맞춰 있음이 드러난다.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출신의 경우 이민의 역사적 원인은 대다수가 농업 이민이었으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도 포함되어 있어 일제강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깊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그들이 1937년 스탈린 정책에 의해 강제이주 되었을 당시도 고려인 지도층이 일본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한 바 있으며, 스파이의 후예라는 명예에 최고위급 직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의 민족적 차별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sup>3)</sup>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사할린 출신 고려인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안고 있는 경우로, 종전 후 귀국하지 못한 채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상처를 지녔기 때문에 한민족의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을 가장 큰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고려인들이 겪은 강제이주의 역사,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비롯하여 정착 과정에서 얻은 시련, 조국 귀환에 대한 한반도의 관조적 태도 등 모든 영역에서 일제강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상처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 스스로도 일본이 한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어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상처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4-1.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총계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응답
남북 분단	69.6	63.0	72.5	70.0		100.0
외세 의존	6.4		5.0	7.4		
경제적인 가난	1.2	3.7	2.5	0.8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5.2	11.1	5.0	4.3	100.0	
세계 각지로의 이산	12.6	11.1	15.0	12.5		
중복응답	4.6	11.1		4.7		
무응답	0.3			0.4		

이 질문에 대해서 69.6%가 ‘남북분단’을 지목하였고, ‘세계 각지로의 이산’(12.6%)을 지목한 경우가 두 번째로 높았다. 한민족이 세계각지로 이산된 문제보다 남북 분단을 더 심각한 상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3) 전병욱, 「고려인 강제 이주 원인과 민족 정체성」,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5집, 201~221쪽. 참고.

이주에 대한 특별한 시련을 겪은 고려인의 특성에 비하면 이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많은 여지를 남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인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식민 트라우마를 정점으로 하여 분석하여 보면, 이산 문제보다 분단의 문제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들이 겪은 이주 역사에 대한 상처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한민족 전체로 보았을 때의 문제로 확대하여 판단한 결과로 이해된다. 설문지의 질문에 쓰인 용어 ‘한민족’, ‘우리 민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신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산의 아픔, 이주민으로서 겪은 고통 보다 분단의 상처를 먼저 택한 현상은 고려인들이 한민족의 범주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또 다른 특성이 발견된다.

표 4-2.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총계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북 분단	69.6	36.8	78.2	74.0	56.6	65.4	80.0
외세 의존	6.4		5.5	9.1	9.4	5.8	4.3
경제적인 가난	1.2	5.3		2.6	1.9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5.2	26.3	3.6	1.3	13.2	3.8	
세계 각지로의 이산	12.6	15.8	10.9	10.4	13.2	19.2	10.0
중복응답	4.6	15.8	1.8	2.6	5.7	3.8	5.7
무응답	0.3					1.9	

연령대 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남북 분단’을 지목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대다수의 연령층에서 과반수가 그렇게 응답했지만, 반면 10대의 경우는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26.3%) 항목을 지목한 경우도 비중이 크다.

고려인과 한반도와의 본격적인 소통은 1990년 한소 수교 이래 시작되었다. 10대는 그 이후의 출생자들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보다 빈번하게 한국에 대해 인지하며 성장해왔던 것이다. 조국, 혹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가능성이 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를 반영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10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활성화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뿌리에 대한 고민 내지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이 항목을 택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고려인은 우리 민족이 겪은 상처의 근원을 일제 강점에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민족이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격동의 세월을 보낸 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다원적인 것인데, 우선 식민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이산의 상처보다 분단의 상처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민족의 범위에서 자신들의 비중을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망각된 디아스포라라는 자기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면, 그들이 지니고 있을 역사적 트라우마는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그 실체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희석화된 일본에 대한 반감

고려인이 지니고 있는 식민 트라우마가 어떤 형상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들이 요구되었다. 첫 번째로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더 싫다.’라는 질문으로 일본에 대한 고려인들의 감정을 살펴보았다.

표 5-1.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더 싫다.

	총계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응답
매우 그렇다	3.4	3.7	2.5	3.5		
약간 그렇다	9.5	11.1	7.5	9.7		
그렇지 않다	39.6	22.2	40.0	40.9	100.0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46.9	63.0	47.5	45.5		
중복 응답	0.3			0.4		
무응답	0.3		2.5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86.5%로 대다수가 일본에 대해 특별한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생계와 독립운동을 위한 일제 강점 때의 이주나 강제 징용과 같은 역사적인 경험과 대비되는 응답 결과이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줄게 된 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현상이다. 다음은 연령대 별로 살펴본 응답 결과이다.

표 5-2.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더 싫다.

	총계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매우 그렇다	3.4		3.6	3.9		1.9	7.1
약간 그렇다	9.5	15.8	7.3	9.1	11.3	7.7	10.0
그렇지 않다	39.6	47.8	30.9	41.6	35.8	42.3	42.9
전혀 그렇지 않다	46.9	36.8	58.2	45.5	52.8	46.2	38.6
중복 응답	0.3					1.9	
무응답	0.3						1.4

이주 역사에 대해 비교적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법한 60대 이상 역시 일본에 대한 큰 반감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감에 대한 10대의 응답률이 더 높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컸던 다른 디아스포라들에 비해 특이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표 6-1.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갚아주고 싶다.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매우 그렇다	4.6	7.4	5.0	4.3			
약간 그렇다	12.3	18.5	7.5	12.5			
그렇지 않다	54.3	48.1	57.5	54.1	100.0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28.5	25.9	30.0	28.8			
중복 응답				0.4			
무응답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복수의 감정을 알 수 있는 질문에도 고려인들은 82.8%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가 15.8%, ‘약간 그렇다’가 26.3%로 응답한 10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층의 경우는 80% 가량이 일본에 대한 복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990년 러시아와의 수교가 시작된 이래 출생한 10대의 경우는 한반도와의 접촉을 더욱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이주 후 정착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성장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민족에 대한 일제 강점에 대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표 6-2.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갚아주고 싶다.

	총계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더 싫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54.5	12.9	0.8	2.6
조금 그렇다			41.9	14.0	5.9
그렇지 않다		27.3	45.2	74.4	41.2

전혀 그렇지 않다		18.2		10.9		49.7
-----------	--	------	--	------	--	------

일본에 대한 복수 감정에 대한 응답 결과와 반감 감정에 대한 응답 결과를 교차 분석하여 보면 위의 표와 같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나 복수의 감정을 부정한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경우는 보복 감정 또한 높았다. 반면 '일본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더 싫다'라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 항목을 선택한 경우는 일본인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가 4%가량 더 높았다. 고려인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보복의 감정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에 대한 복수의 감정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감을 생활 속에서 포착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는 '일본과 축구경기를 할 때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일본과 축구 경기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일본이 지길 바란다'라는 질문이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일본과 한민족을 향한 고려인의 감정을 비교하여 짐작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질문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의 정도를 추측할 수 있었다.

표 7.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복수 감정의 교차 분석

		총계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갚아주고 싶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이든 한국이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렇다	78.8	80.0	87.5	76.3	80.6
	그렇지 않다	19.6	20.0	10.0	23.2	17.2
일본과 축구 경기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일본이 지길 바란다	그렇다	11.7	66.7	37.5	5.6	3.2
	그렇지 않다	84.4	33.3	60.0	90.4	92.5

일본과의 축구경기에서 한민족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78.8%가 대답하였고, 무조건적으로 일본이 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84.4%가 대답하였다. 이 결과로 고려인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극단적인 편은 아니며, 단지 한민족에 대한 애정이 일본에 대한 것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알아본 결과와 교차 분석해 보면, 복수의 감정 여부를 떠나서 일본과의 경기에서 한민족이 이기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복수의 감정이 있는 경우도 어느 나라와의 경기이든지 일본이 지기를 바라는 극단적인 적대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어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사실에 대해 질문하여 일본에 대한 감정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표 8-1. 일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감정과 반감의 교차 분석

		총계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더 싫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게 억울하다	그렇다	6.1	27.3	32.3	2.3	2.6
	그렇지 않다	90.2	63.6	54.8	93.8	96.1

대다수의 고려인들은 일본의 경제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는 대상자들도 일본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은 들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30% 가량 더 높았다.

표 8-2. 일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감정과 복수 감정의 교차 분석

		총계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갚아주고 싶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게 억울하다	그렇다	6.1	40.0	22.5	1.7	2.2
	그렇지 않다	90.2	53.3	75.0	94.9	93.5

일본에 대한 복수 감정과 일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감정을 교차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복수 감정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들 가운데에도 일본의 경제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더 높았다.

고려인의 가진 일본에 대한 감정은 다른 디아스포라에 비하여 저조한 수준인데, 일본이 주도한 한민족의 근현대사적 사건들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일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둔감한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인이 눈앞의 현실문제에 대해서만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과 한반도 보다 일본과의 접촉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출신의 경우,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주도 있었지만 조선의 기근을 피해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29%가 1910년에 시민권을 획득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가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었고, 농민들은 여전히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해야만 했었다. 이후 1931년 일본이 만주를 공격하자 러시아 극동지역은 긴장감은 높아졌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인은 강제 이주 처리되었다.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은 계속되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부활되었고, 이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소련에 적응하기에 바빴던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의 토착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재이주 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들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존 문제였다. 그들에 대한 처우가 급변하는 공간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그들에게 일본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은 현실적인 효용성을 느낄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일 수도 있다.

사할린의 경우도 일본의 강제 징용, 종전 후 그들을 방치한 일 등 일본과의 역사적 경험이 민감한 사항이지만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지역의 출생자들에 비하여 일본과의 접촉 빈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은 내국의 사정과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는 이유로, 소련은 노동력 확보와 북한의 반대를 이유로 그들의 조국 귀환에 소극적이었다. 사할린 고려인들의 기대와 달리 가장 먼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귀환지원단체였다. 1975년 사할린 재판을 시작으로, 1983년 '아시아에 대한 전후 책임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유엔인권위에 제소를 시도한 일, 1987년 재 사할린 한국 조선인 문제 의원감담회를 설립한 일 등 그 움직임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1989년 일본과 한국, 양국의 적십자가 공동사업체를 설립하여 그들의 귀환을 성공시킨 성과를 얻은 일도 이러한 노력의 기반으로 가능하였다.

결국 사할린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귀환 소망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 주체는 일본이었던 것이다. 조국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된 것에 비례하여 그 반동으로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상승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들이 지닌 식민 트라우마를 짐작하게 한다. 일본에 대해 반감이 저조한 특성은 앞서 한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민족으로 일본을 1위로 꼽은 조사 결과와 상치되는데, 한민족의 문제와 자신들의 문제를 격리시켜 사고하는 경향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남북분단' 등 한민족의 현상태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에서 야기된 상처들이 잔존한다고 보는 반면, 자신들의 문제와 일제 식민지 정책을 직결시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식민 트라우마는 그 실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들이 지닌 역사적 트라우마 전체에서 식민 트라우마의 비중이 적을 뿐이며, 다른 영역의 트라우마의 강도가 우세하여 상대적으로 일제 강점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2.2. 국민/민족 정체성과 이산 트라우마

### 2.2.1. 러시아에 대한 동화 의식과 이산 트라우마의 특성

#### 1) 러시아의 민족 정책에 대한 인식 : 적응 성과에 대한 높은 자부심

이주의 역사 경험을 지닌 사람들은 거주국 및 거주국의 주요 종족과의 갈등에서 야기된 트라우마를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스탈린 정책에 의한 강제이주나, 일본 제국주의 폭력으로 인한 강제이주를 경험한 고려인의 경우에는 자의에 의한 이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트라우마의 강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로 여러 민족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가 부활되는 등 중심 세력이 교차되는 혼돈의 역사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수난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이에 이산 트라우마의 내용과 강도는 특별할 것으로 추론되는 바, 거주국에서의 경험했던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표 9. 최근 러시아에서 실시하는 민족정책에 만족하십니까?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매우 만족	1.8	3.7		1.9		
만족	61.7	59.3	57.5	62.3	100.0	100.0
불만족	31.6	29.6	37.5	31.1		
매우불만족	4.0	7.4	5.0	3.5		

거주국의 정책에 대한 갈등 정도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가 러시아의 민족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하다는 답변 또한 그 수치(34.6%)가 높은 편인데, 소수민족에 대한 당국의 정책이 급변해 왔다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구소련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스탈린의 민족정책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스탈린의 이른바 대숙청 당시 연해지방의 한인들은 유대인, 체첸인 등 소수민족들과 함께 가혹한 분리·차별정책에 휘말려 1937년 9월9일부터 10월 말까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되었다. 스탈린 정책으로 인해, 이주하는 민족이나 토착민 역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민족의식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민족적 다양성을 단일화하고자 소수민족에 대한 강압 정책을 실행하던 구소련 정책 하에서 고려인은 농업 생산에 주력하여 소련 체제에 충성하는 시민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인정받아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 있었다. 구소련 당국은 고려인의 중간관료로의 진출을 허용하면서 슬라브민족과 토착민족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현지 토착민들을 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이다.<sup>4)</sup>

이어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었고, 러시아연방이 수립되면서 고려인은 또 다른 체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토착민족주의가 부활되고 이민족 차별 정책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독립국가들은 토착어를 국가어로 공표하였고, 소련 시절 중앙아시아의 토착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고려인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차별이 심화되어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되어 또 다른 곳으로 재이주를 하게 된 고려인도 상당수이다.

혼돈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우리, 다민족 국민”으로 시작되는 헌법 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다민족이라는 특성을 국민 정체성으로 형성해왔다. 다민족의 존재가 러시아 연방의 보존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민족에의 소속이

4) 전병욱, 「고려인 강제 이주 원인과 민족 정체성」,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5집,



주는 특권과 차별을 부정하며, 민족적 반목 행위나 민족적 우월성에 대한 선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민족 정체성을 표방한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 스탈린정책으로 인해 탄압받았던 민족들의 복권과 재이주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어 “러시아 한인들의 복권에 관한 최고 소비에트령”이라는 중요 법안이 1993년 통과되자, 러시아 한인들은 복권과 재이주, 국적회복 등을 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지 않아, 원활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로 재이주한 한인들의 규모는 7~8만 명에 그친다.

이렇게 거주국의 정책이 급변하는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당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왔으며, 당국의 정책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이다. 과거에 비하여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인 것도 사실이며, 적응이 성공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주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반응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내 민족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도 위의 결과와 상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 러시아는 러시아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계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응답
매우 그렇다	15.0	3.7	20.0	15.6		
조금 그렇다	52.8	63.0	72.5	48.2	100.0	100.0
그렇지 않다	30.4	25.9	5.0	35.0		
전혀 그렇지 않다	1.5	7.4		1.2		

전체적으로는 67.8% 가량이 러시아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디아스포라에 비하여 비교적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31.9%)이 높다.<sup>5)</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로서 정체성이 확실하여 민족문화를 지지하고 자치단체 결성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미흡하여 실제적으로 권리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당국은 특정 민족이 정치적으로 분리 독립이나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를 차단하고자, 그 권리에서 정치적인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sup>6)</sup> 여전히 다수 민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고려인들은 구소련 시기에 이미 러시아화 정책으로 러시아어에 능통하며, 문화에 대한 적응능력도 높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고려인들은 재빨리 러시아 중심의 민족주의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기왕에 타국에 살아남으려면 재빨리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일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자신들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기도 하다. 러시아 내의 고려인들은 중심 세력과 동화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러시아 중심 세력의 강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할린 출신의 경우 92.5%가 러시아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중앙아시아 출신과 다른 이주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할린의 경우는 30년대 일제로부터 강제 징용되어 이주해왔기 때문에, 이주 역사도 짧은 뿐 아니라 귀향 의식이 강해서 중심세력과 융화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동화된 단계의 고려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심 세력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다음 질문을 통해서 거주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민족 간의 이질감 정도를 확인하였다.

표 11-1. 러시아 내 기타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가?

5) 비교적 다수의 민족이 살고 있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경우는 총 82.2%가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6) 김인성, 연해주 한인사회를 통해 본 러시아정부의 다문화정책, 소련 및 CSI의 고려인. 참고

	총계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응답
항상 느낀다	7.4	11.1	5.0	7.4		
가끔 느낀다	50.3	37.0	50.0	52.1		
느끼지 못한다	42.3	51.9	45.0	40.5	100.0	100.0

과반수가 러시아 내 다른 민족과의 이질감을 경험한 것으로 대답하였으나, 비교적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42.3%)로 높은 편이다.

표 11-2. 러시아 내 기타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가?

	총계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항상 느낀다	7.4		7.3	6.5	7.5	11.5	7.1
가끔 느낀다	50.3	47.4	38.2	49.4	50.9	61.5	52.9
느끼지 못한다	42.3	52.6	54.5	44.2	41.5	26.9	40.0

같은 질문에 대한 연령대 별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이질감을 경험한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부의 집권 강화를 위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특별한 공간에서 적응에 성공한 그들이 러시아에서 느끼는 이질감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혹은 그 사회의 특성 상 민족 간의 충돌을 자주 체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민족적 이질감에 대해서 둔감한 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 2) 치열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민족적 차별로 인한 트라우마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려인은 이질감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둔화될 정도로 거주국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주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적응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회에 여전히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며,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사례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의 응답 현황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표 12. 러시아에서의 차별 경험

		총계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응답
나는 러시아에서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 적이 있다.	있다	42.3	44.4	57.5	39.7		100.0
	없다	55.8	55.6	40.0	58.4	100.0	
'너희 나라로 돌아가'와 유사한 소리를 한번쯤 들은 적이 있다.	있다	39.9	37.0	45.0	39.3		100.0
	없다	59.5	63.0	52.5	60.3	100.0	

42.3%가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39.9%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고, 그에 대한 적응도 성공하였지만 실생활에서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다음 질문을 통해 차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표 13. 러시아에서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 중에 내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총계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응답
민족적 편견과 무시	62.3	66.7	52.2	63.7		
취업과 임금 등 경제적 차별	10.1	8.3		12.7		100.0
정치적 권리의 제약	13.0	8.3	26.1	10.8		
문화적 우월주의와 갈등	10.1	8.3	8.7	10.8		

중복응답	2.9	8.3	8.7	1.0		
무응답	1.4		4.3	1.0		

거주국에서의 사회 진출도 활발한 편이며, 적응 성과에 대한 자부심 또한 높은 고려인들의 경우 다른 디아스포라에 비하여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차별 경험 정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62.3%가 ‘민족적 편견과 무시’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피부와 눈동자 색이 확연히 다른 고려인으로서 편견과 무시와 같은 상처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려인은 러시아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피해의식은 적은 편이나, 종족 갈등은 다소 경험하고 있는 편인 것이다.

다른 내용의 차별과 달리 민족적 편견과 무시는 자의적으로 변형할 수 없는 요인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외양과 같이 변형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하여 100%의 완벽한 동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어와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노력 이외에 또 다른 장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적응을 위한 노력에 반한 러시아인들의 대우로 인해 그들은 한계점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비례하여 그 좌절감 또한 상당할 것이다. 그들의 이산 트라우마는 이 좌절감의 문제가 중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2.2.2. 한반도에 대한 민족적 리비도와 이산 트라우마의 특성

### 1) 한반도의 해외동포정책에 대한 인식 :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남한에 대한 기대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유민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고려인들은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주국에 적응하는 길을 선택하여 왔고 그 성과도 성공적이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발전되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는 잊어진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고려인에 대한 한반도의 정책적인 처우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한국과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거주국에서의 100%의 완벽한 동화가 불가능한 지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고려인의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대한 민족적 리비도와 관련된 트라우마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표 14. □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한국(남)	그렇다	35.0	37.0	50.0	32.3		100.0
	그렇지 않다	11.3	11.1	10.0	11.7		
	모르겠다	53.4	51.9	40.0	55.6	100.0	
조선(북)	그렇다	17.8	22.2	42.5	13.2	100.0	
	그렇지 않다	22.7	22.2	17.5	23.7		
	모르겠다	58.6	55.6	40.0	61.9		100.0

한반도의 정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이다. 여타 디아스포라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은 낮은 편이나, 이 응답 결과는 오히려 한반도 정권에 대한 관심이 희소한 상태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조선에 비해 한국이 그들의 정권으로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두 배 이상 높아, 해외동포를 대하는 남한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러시아 고려인들 사이에 남한은 하나의 열풍이 되었다. 망각되었던 자신들의 뿌

리가 상기되면서 동시에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빛이 제공된 셈이었다. 자연스럽게 고려인들은 선진적인 나라가 되어 돌아온 남한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된 것이었다. 당시 고려인들 사이에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불었던 현상이 그들이 가진 남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이래에 두 나라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외국의 투자유치를 원하고, 한국은 러시아의 천연자원에 관심이 많아 그들의 교류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었다. 당시 러시아 내 고려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국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양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경제특구’라는 지역과 지위를, 고려인들은 인력을,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것이 1992년에 설립된 ‘한인경제특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몇 년간 구체적으로 실행 발전되었으나, 러시아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부정적 태도와 제한 조치, 그리고 재이주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등에 의하여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러나 1997년 3월에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호지원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남한의 노력이 제공된 것 또한 사실이다.<sup>7)</sup> 그러니까 남한 정책에 대한 고려인의 만족도는 1990년대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남한의 정책과 러시아 내의 남한 기업의 진출로 자극된 남한을 향한 민족적 리비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정권에 대한 평가가 북조선에 비하여 부정적인 이유도 역시 기대한 바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려인들은 남한을 구원에 대한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연민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련과 북한정부의 조약체결로 1946-1949년 기간 동안 총 약 50,000명의 한국인들이 소련 극동지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일했다. 계약이 끝난 후 약 10,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소련에 머물렀다. 1990년 대 초 소련 해체와 남한과 러시아의 외교관계가 재개된 이후 남한 기업이나 선교사들, 학생들이 러시아의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그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준 것과 달리, 당시 고려인들의 눈에 비친 북한 사람들은 별목공, 어부, 건축인 등으로 동시베리아와 사할린 등지에서 노동하는, 고려인과 다를 바 없이 어려운 상황의 노동자들이었다. 북한의 선전과 다른 실상을 눈앞에서 피부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한과 달리 북한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남한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질문이 요구되었다.

표 15-1. 한국(남한)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매우 만족	2.5			2.7	100.0	
만족	79.4	81.5	72.5	80.5		100.0
불만족	14.4	18.5	15.0	14.0		
매우 불만족	0.9		2.5	0.8		
무응답	2.8		10.0	1.9		

80% 이상이 남한의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출생지별로 살펴봐도 전체적인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단 사할린 지역 출신의 경우 10% 가량이 ‘무응답’한 지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사할린 출신의 경우 남의 정권이 해외동포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 높았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사할린 지역의 고려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징용된 노동자들에 뿌리를 두고 있는 디아스포라이다. 이들은 러시아, 일본, 한반도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귀향을 요구하였다. 러시아는 그들이 남한으로 귀환하는 문제를 반대하는 북한의 견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들의 이주로 노동력이 상실되

7) 노영돈, 구소련의 고려인 정책과 현 CIS내 한인의 실태,

는 손해를 감지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귀환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일본 역시 외교상 예민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사할린 고려인들은 조국이 그들을 귀환시켜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졌지만, 신생 정부는 내부혼란과 6.25전쟁 등으로 여유가 없었다.

그들에 대한 남한의 조치는 1990년 12월 한소 국교가 수립되면서 활발해졌다. 한일 양국 적십자사의 주축으로 '사할린 거주 한인 지원 공동사업체'가 설립되었고, 1994년 영주귀국 시범사업 아파트 및 요양원 건립되었다. 1997년 서울 인천지역 100가구 임대아파트 영주귀국 추진되었으며, 1999년 인천에 100명상의 사할린동포 복지회관이 개원되었다. 2000년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가 완성되어 총 489세대가 입주하는 성과를 보였다.<sup>8)</sup>

지금은 영주귀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지만, 사할린 동포들에게 남한은 경제협력과 귀환정책에 힘을 써준 조국 내지 모국임에는 분명하다. 그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인식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2) 한반도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교차

러시아와 한국의 수교가 시작되자, 산업적, 종교적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민족의 러시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러시아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한민족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들의 이산 트라우마에 어떤 영향이 가중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우선 그들이 대면하여 온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16. 한국인(남쪽 사람)이 재외동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매우 만족	1.2			1.6		
만족	70.2	66.7	50.0	73.5	100.0	100.0
불만족	24.2	25.9	42.5	21.4		
매우 불만족	2.8	7.4	2.5	2.3		
무응답	1.5		5.0	1.2		

대체로 한국인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71.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의 비율 역시 다른 디아스포라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다만 사할린 출신의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집계되었다(50%). 사할린 동포들이 지닌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취 때문이라도 정책적으로나 민간적으로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잦았던 사할린 고려인의 부정적인 반응은 유의미하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시도되었다. 한민족과의 대면에서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 정도를 알 수 있는 질문이었다.

표 17. 나는 □쪽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남	있다	27.0	22.2	20.0	28.8		
	없다	66.9	74.1	75.0	64.6	100.0	100.0
	무응답	6.1	3.7	5.0	6.6		
북	있다	6.1	3.7	5.0	6.2	100.0	
	없다	73.9	77.8	75.0	73.5		100.0

8) 김성중,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0집, 2006, 195~218쪽.

	무응답	19.9	18.5	20.0	20.0		
--	-----	------	------	------	------	--	--

다른 디아스포라에 비해 차별 경험이 없는 편으로 집계되었지만, 그 피해의식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바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1990년 대 이전에는 남한 사회에서 고려인에 대한 인식은 망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디아스포라에 비하여 한민족과의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북조선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 보다 한국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20%이상 집계된 현황은 그들이 지닌 남쪽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조선은 한국보다 더 이른 시기에 구소련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접촉 빈도가 높은 편인데에도, 남쪽 한민족에 대한 피해의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대와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고려인들에게 북한 사람들은 같은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에 불과하였다. 50년대 말부터 소련은 이들에게 북한 국적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는데, 당시 사할린 고려인들 사이에 북한 선전의 허구성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고려인들은 북한 국적을 포기하고 소련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하였다.<sup>9)</sup> 그리고 연해주 등지에서 접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은 국가 체제에 의하여 이주된 노동자들이었으며, 간혹 탈북을 시도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뿐이었다. 자신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이 수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고려인들은 구원의 기대를 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그들이 느끼는 남쪽 한민족과 북쪽 한민족에 대한 피해의식의 정도가 다른 이유는 기대의 정도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민족에 대한 피해의식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남 혹은 북쪽으로 부터 받은 상처의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였다.

표 18. 남쪽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관심	5.7		12.5	5.4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30.7	16.7	12.5	33.8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	31.8	16.7	25.0	33.8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태도	18.2	50.0	12.5	16.2		
기타	1.1			1.4		
중복응답	11.4	16.7	37.5	8.1		
무응답	1.1			1.4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31.8%)와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30.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두 항목을 지목한 비율이 동등하지만, 사할린의 경우는 두 배 이상이 남쪽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쪽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남한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다.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남쪽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에게 ‘무시’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남한의 지원적 방문이 잦았던 사할린의 경우는 남쪽 사람들과의 대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위의 결과를 통해 드러난다.

귀환 문제나 피해 보상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쪽 사람들의 연민어린 시선은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사할린에 진출한 남쪽 한민족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디아스포라에 비하여 고려인이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비교적 자주 접한 사할린의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남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특히 남한 사람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려인과의 교류가 전면화 될 경우 우리의 접근이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인식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예상할

9) 김성중,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0집, 2006, 195~218쪽.

수 있다.

러시아 전반을 포함하여 특히 사할린 지역의 고려인들은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은 현상은 한반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정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한민족에 대한 높은 피해의식은 그 민족적 리비도의 좌절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이산 트라우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표 19. 북쪽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관심	34.8	50.0	50.0	33.3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17.4			22.2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	4.3			5.6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태도	13.0		50.0	11.1		
기타	13.0			16.7		
무응답	17.4	50.0		11.1	100.0	

북쪽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질문하자, 역시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를 지목한 경우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에 대한 반응과 달리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를 인식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그들의 처지를 체감한 고려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무관심’을 지목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무응답’의 택한 비율도 높은 편이다.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이 감소한 현상을 반영한 결과이며, 그들에게 어떠한 기대도 품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수용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인식이 ‘무응답’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러시아와 한반도의 정책과 태도에 대해서 고려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러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기대는 그들의 국가·민족적 리비도를 보여주었으며, 피해의식과 같은 그에 대한 감정 상태는 그 기대의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산 트라우마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에 동화·의식은 완벽한 적응을 위한 치열한 노력과 적응 성과에 대한 만족감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민족 간의 갈등으로 100% 완벽한 동화가 불가능한 현실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 좌절감을 예상할 수 있었다.

러시아에 대한 동화·의식의 좌절은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조국/모국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민족적 리비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나 귀환 정책 등에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한편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남한 사람들이 접근이 그들에게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2.3. 분단 체제와 분단 트라우마

#### 1) 한반도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 한반도의 발전 저해 요소, 분단 체제

남북 분단과 6.25전쟁은 한민족의 근현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

10) 김명호, 통신원 광장 : 고려인 젊은이들의 고민, 민족21·KIN공동기획, 망향의 그늘, 사할린이 말한다① 반세기 넘게 우리를, 고향을, 목놓아 부르다, 민족네트워크,

체제가 디아스포라들에게 어떤 상처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려인들이 분단과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았다.

표 20.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59.8	59.3	62.5	59.5		100.0
다소 피해를 입었다.	32.8	37.0	22.5	33.9	100.0	
피해를 입지 않았다.	4.0	3.7	10.0	3.1		
무응답	3.4		5.0	3.5		

92.6%가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이 우리민족에게 많은 피해를 남겼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분단 체제에 대한 반응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총계	출생지				무응답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그렇다	81.0	66.7	67.5	84.4	100.0	100.0
아니다	18.1	33.3	27.5	15.2		
무응답	0.9		5.0	0.4		

분단 체제의 지속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다’로 대답한 비율이 81.0%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감보다 다소 감소된 형태로 집계되었다. 분단 체제에 대한 반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결과이다. 앞서 일제 강점이 남북 분단이라는 상처를 남겼다고 인식하는 고려인들의 반응과 결부시켜 보면, 남북 분단이 그들에게 큰 문제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려인들이 지니고 있는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특성을 분석한 논의<sup>11)</sup>에서, 이들은 조국과 모국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내가 태어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조국을,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모국을 인식하고 있었고, 조국을 묻는 질문에 ‘러시아’를 선택한 비율이 86.8%였고, 모국을 묻는 질문에 36.2%가 ‘한반도’를 선택하였고, 러시아와 한반도 모두를 모국으로 생각한다고 15.0%가 대답하였다. 반면 모국으로 북조선(9.5%)이나 남한(15.3)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서의 모국은 민족정체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다수의 고려인들이 모국으로서 한반도를 지목한다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 리비도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적 리비도가 한반도로 향한다는 것은 그 실체가 모호한 문제를 낳는다. 이제 한반도는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이며, 실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확고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민족적 리비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위의 결과와 같이 그들에게 남북분단의 문제가 크게 각인되어 있는 지점과 상통한다. 더불어 분단되지 않는 상태, 혹은 통일된 상태의 모국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민족적 리비도의 특성은 분단을 극복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2) 남과 북에 대한 감정 : 개혁 개방에 소극적인 북한에 대한 반감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분단체제를 지속해온 남한과 북한에 대한 고려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11) 박민철, 재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연해주/사할린 지역을 중심으로-,



질문들이 요구되었다.

표 22. 남과 북 중 분단 지속의 책임 소재

	총계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응답
한국(남한)	8.6	18.5	2.5	8.2		100.0
조선(북조선)	79.8	70.4	67.5	82.9	100.0	
중복응답	4.3	7.4	7.5	3.5		
무응답	7.4	3.7	22.5	5.4		

우리 민족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단 체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는 79.8%가 북조선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고려인들이 생각할 때 분단 지속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표 23.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

	총계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기타	무응답
남과 북이 서로 적대하기 때문에	45.1	55.6	50.0	43.6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6.1			7.8		
한국(남한)이 미국편에서 조선(북조선)을 봉쇄하기 때문에	8.3	3.7	12.5	7.8		100.0
조선(북조선)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4.7	25.9	25.0	37.0	100.0	
중복응답	5.2	14.8	10.0	3.5		
무응답	0.6		2.5	0.4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고려인들은 남과 북의 적개심을 45.1%로 가장 많이 지목하였으며, 두 번째로 34.7%가 북조선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서 분단 지속의 원인을 북한의 폐쇄정치로 보고 있는 고려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민족정체성은 모호한 실체로 향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분단체제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6.25전쟁과 같은 상흔을 몸소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6.25전쟁이나 분단체제는 귀환을 꿈꿨던 그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곳이 상실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귀환문제에서 돌아갈 곳을 결정할 때, 귀환을 꿈꾸지 않더라도 조국이나 모국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고려인들은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 이미 이중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어야 했던 문제에 분단체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남북분단은 그들의 욕망하는 ‘민족’이 국가 개념으로서 확고한 실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실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나오며: 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

조사대상이 고려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며,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 거주 고려인들의 표본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의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그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 또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시도한 이유는 간접적인 방식로나마 고려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특징들을 포착하여, 그 심층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 향후 심층면담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고려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실체가 조금 더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과 그 특징

나지영(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1. 들어가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가운데서도 재일조선인이 처한 역사적·사회적 상황은 매우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재일조선인은 식민 종주국인 나라, 일본에서 살고 있다.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이 라는 한민족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식민 종주국인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조선인들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일본사회에서 피지배층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은 재일조선인의 발생기원인 식민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식민지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sup>1)</sup>

다음으로, 재일조선인사회는 다른 지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보다도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다.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일본의 외교 정책에 따른 ‘조선적’과 ‘한국적’의 구분은, 재일조선인에게 한국 또는 북한과 일본사회에서 모두 배척받는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강요하였다.<sup>2)</sup> 또한 ‘조선적’과 ‘한국적’의 구분에 따른 차별은 ‘민족의 분단’ 뿐 아니라 ‘민족으로부터의 분단’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재일조선인들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재일조선인사회 안에서 다시 한 번 분단이 되어야 하는 이중적 분단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처럼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집단적 경험의 총체라 할 수 있다.<sup>3)</sup> 이때의 트라우마는 특정한 집단이 서로에게 전파시키고, 또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실체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과 특징을 탐색해 보았다. 설문조사는 지난 2011년 10월~12월, 일본 현지에 주로 도쿄,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 중 1945년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올드 커머’(old comer)와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sup>4)</sup>

- 1) 김숙자는 ‘재일조선인에게 식민지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사람이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놀랐다” (장혜영),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적당한 일본이름을 만들어 넘겼다.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서 일시적인 인간관계는 언제나 그렇게 넘겼다”(이예순)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사람의 대부분은 재일조선인의 발생기원인 식민지 역사를 모른다. 그런데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식민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그 결과 일본사람들에게 재일조선인은 ‘마음대로 일본에 진입해 와서 들어본 적도 없는 과거사를 과대선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천하고 시끄러운 사람들’로 비치고 있다.’라고 하였다.(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재일조선인 3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3쪽.)
- 2) ‘한국(또는 북한)과 일본사회에서 모두 배척받는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강요받아온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의 이주 한인들과는 달리, 재일한인은 국적 차별로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도,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한인 2세조차도 모국의 국적을 고수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삶을 영위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2, 3세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재일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일본사회에의 적응 방식과 스스로의 정체성 문제로 심각한 진통을 겪게 된다.’ (이상갑·정덕준, 「재일 한인문학의 특장(特長)과 균열의 틈새- ‘문예동’ 소설의 전개 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6집, 2011, 230쪽.)
- 3) 윤송아는 재일조선인의 트라우마를 논하면서, 일본사회 내에서 가정폭력의 만성화, 집단따돌림과 자살기도 등의 개인적 외상(外傷)은 민족적 학살(관동대지진)의 추체형, 일본군 성노예로 유린당한 경험 등 민족적 외상과 연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집단적 신체 경험으로 확장, 재현된다고 하였다. 은폐되고 억압된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피식민 기억은 파편화된 망각의 시간을 재편하여 재일조선인 개인의 현재적 삶 속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윤송아, 「재일조선인 문학의 주체 서사 연구-가족·신체·민족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52쪽.)
- 4)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민족공동성연구프로젝트를 위해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 현지에서 일본 소재 재일조선인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NGO센터’ 도쿄 사무국 사무국장이 10여 명의 조사인력과 함께 3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316명 중 293명은 직접 대면조사를 했고 23명은 설문지를 응답

유효 응답자 314명 중 93%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253명,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이 25명,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35명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에서 조선 국적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절에서는 먼저 재일조선인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 3절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기존 연구 동향

재일조선인의 트라우마를 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일조선인을 디아스포라로 인지한다는 것을 전제한다.<sup>5)</sup> 디아스포라는 이동, 이산으로 인해 탄생된 존재이다. 나아가 소수집단이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정체성과 모국의 정체성 사이에서 어디에도 거주하지 못하는 ‘이방인’ 의식을 집단화하여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또 그것은 종종 ‘차별’의 표지로 작용하여 공식적인 억압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디아스포라는 억압, 차별, 배제, 고독, 정체성의 혼란 등 특별한 문화적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디아스포라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트라우마’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재일조선인집단을 과연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라경수<sup>6)</sup>는 ‘디아스포라는 박해와 추방으로 인해 고국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정신적 외상(trauma)’을 입은 피해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매우 강한 개념이다. 디아스포라 개념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국가 혹은 민족의 틀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이를 초월하는 자기 정체성의 혼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재일코리아인들의 현재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재일조선인 전체를 디아스포라로 일반화하고 규정하는 것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일조선인은 스스로 여기고 있는 민족적 소속감에 있어서도 크게 북한과 남한과 일본이라는 다기한 지향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해 ‘디아스포라’라 통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반면, 김태만<sup>7)</sup>은 ‘디아스포라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재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있어서는 더욱 복잡한 이해의 경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학자가 재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개념에 대해 자기 편한대로 오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는 학문영역에 있어서는 그다지 용인하기 어려운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재일조선인을 디아스포라로 바라보는 관점은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연결된다.

특히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문학을 매개로 논의되어 왔다. 김태만<sup>8)</sup>은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를 다룬 영화 <우리에게 원래 국가가 없었다>, <박치기>, <우리 학교>등 세 편을 분석하면서 재일조선인들이 영원한 숙명과도 같은 ‘노스텔지어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극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세 편의 영화는 각각 조국으로부터 버

자에게 보내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회수한 316부의 설문지 중 2부는 자료분석의 대상으로 문제가 있어 314부만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5) 재일조선인 학자 서경식은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서경식 저, 김혜신 역,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6) 라경수, 「일본의 다문화주의와 재일코리아인-공생과 동포의 사이-」, 『재외한인연구』 제22호, 재외한인학회, 2010, 74쪽.

7) 김태만, 「재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영화 <우리에게 원래 국가가 없었다>, <박치기>,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374쪽.

8) 김태만, 앞의 글, 2010, 371-387쪽.

림받은 국민들이 고통과 슬픔을 극복해 가는 과정과, 디아스포라들이 궁극적으로는 현지와의 화해를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질곡과 아픔을 넘어서야 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각 영화의 주제와 관련해 디아스포라의 궁극적 존재와 지향이 곧 “화해와 공존”이라고 논하였다.

윤송아<sup>9)</sup>는 세 명의 대표적인 재일조선인 작가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작가가 디아스포라로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작품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재일조선인 문학의 분석을 통해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의 재일조선인의 양가적 위치를 좀더 객관적이고 능동적으로 검증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재일조선인 문학에 요구되었던 ‘민족적 정체성’ 구현이라는 고정된 분석틀에서 벗어나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포용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권성우는 대표적인 재일조선인 여성 작가 이양지와 유미리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재일조선인의 트라우마에 대해 논하였다. 우선 그는 이양지 소설에 나타난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은 일본에도 동화될 수 없고 조국에도 적응할 수 없는 민감한 영혼의 상처라면서, 이양지 소설에 나타난 우울증은 단지 개인적인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사적 기억에 연루되어 있는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양지 소설에서 우울증적 주체의 절망은 디아스포라이기에 한층 우울하다는 것이다.<sup>10)</sup> 다음으로 그는 유미리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한국 국적을 지닌 재일 디아스포라 작가 유미리의 글쓰기는 민족주의나 ‘조국’이라는 코드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일종의 ‘문학적 보편성’ 및 현대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논하였다.<sup>11)</sup>

이처럼 재일조선인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재일조선인의 문학을 분석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재일조선인의 트라우마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논의들은 많이 있지만, 역사적 트라우마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갖는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다양한 양상을 고루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해야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역사적 트라우마와는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

역사적 트라우마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제 강제 병합과 강점’이라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근원적 트라우마인 ‘식민 트라우마’가 있다. 이는 제국주의국가가 민족을 강탈함으로써 배제되고 억압된 극단적 사건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국가를 잃어버린 민족이 제국주의적 약탈정책과 식민화정책에 의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다른 민족과 함께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 억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 트라우마’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상처로부터 오는 ‘분단 트라우마’가 있다. 이 세 가지 트라우마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트라우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근본적 트라우마와 착종되어 나타날 수 있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는 다시 분단체제가 낳은 남과 북이라는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와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국민화 과정에서 국가가 행사하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9) 윤송아, 「재일조선인 문학의 주체 서사 연구-가족·신체·민족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0) 권성우, 「재일 디아스포라 여성소설에 나타난 우울증의 양상-고(故) 이양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0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97-122쪽.

11) 권성우, 「재일 디아스포라 여성문학에 나타난 탈민족주의와 트라우마-유미리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1, 307-331쪽.

3절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분석하기 위해 ‘식민 트라우마’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의 연장선 상에서 ‘이산의 트라우마’와 ‘분단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착종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 트라우마

재일조선인에게 식민지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재일조선인들은 ‘강압적으로 유폐되었던 식민지 상황’이 해방 이후에도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일본 사회 안에서 역사적 타자로, 내부적 식민지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면서,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민의 삶을 강요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여기서 왜 해방 이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재일조선인들이 해방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서경식은 ‘해방 직후 많은 재일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약 60만 명의 재일조선인들은 고국 분단 상황으로 인해 정세가 험악해 지고, 생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 한 것 등의 이유로 인해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sup>13)</sup>고 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 8.15광복 이후 한반도로 귀국하지 않고 여기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거나 들었습니까?

8.15광복 이후 한반도로 귀국하지 않고 여기에 살게 된 이유	총계
일본에 집이나 일이 있었기 때문에	29.6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1.0
해방 후 조선반도의 시국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18.5
조선반도에 삶의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29.0
일본이 자신의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3.8

8.15광복 이후 한반도로 귀국하지 않고 여기에 살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일본에 집이나 일이 있었기 때문에’(29.6%)와 ‘조선반도에 삶의 터전이 없었기 때문’(29.0%)이라고 답하였다. 이미 모든 삶의 터전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해방 후 조선반도의 시국이 불안정했기 때문’(29.0%)이라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을 보면, 한반도 분단의 상황은 재일조선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일본이 자신의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를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본을 자신의 나라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한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로 일본을 꼽았다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았거나 또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본은 ‘가해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 역사적으로 한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총계	국적			민족학교 경험	
		한국	조선	일본	경험있음	경험없음
일본	63.7	65.6	48.0	60.0	53.3	68.4
미국	14.3	13.8	24.0	11.4	23.8	9.7
소련	3.8	3.2		11.4	1.9	4.9
중국	3.2	3.2		5.7	2.9	3.4

12) ‘재일조선인은 일본 사회 안에서 동일화와 타자화를 끊임없이 강요받아온 ‘양가적 존재’이다. 즉 이들은 ‘화(和)’와 배외(排外), 차별과 동화(同化), 복종성과 공격성의 원리, 그리고 천황제 서열체계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동질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천황제 민족질서’의 가장 아래,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민의 삶을 강요받아온 역사적 ‘영락물’이다.’ (윤송아, 『재일조선인 문학의 주체 서사 연구-가족·신체·민족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9쪽.)

13) 서경식, 임성모·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사이』, 돌베개, 2006, 122쪽.

전체 응답자의 63.7%가 ‘한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가 ‘일본’이라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하기는 하였지만, 국적에 따라서 한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를 고르는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조선 국적의 응답자가 다른 국적의 응답자에 비해 ‘미국’을 많이 선택하였다. 민족학교 경험이었다고 한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일본’ 다음으로 ‘미국’을 많이 선택한 편이다.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두 변인 간에 비슷한 성향의 답변이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한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로 일본을 선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표 3.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총계	국적			민족학교 경험	
		한국	조선	일본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남북 분단	51.6	50.6	68.0	45.7	61.0	46.1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7.6	7.5	4.0	11.4	4.8	9.2
경제적인 곤란	7.6	7.5		14.3	4.8	9.2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11.8	12.6	4.0	11.4	4.8	15.5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8.6	7.9	12.0	11.4	8.6	8.7

전체 응답자의 51.6%는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가 ‘남북 분단’이라고 답했다.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을 선택한 비율(8.6%)은 의외로 낮은 편인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남북분단’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상처가 온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적별로 보면, 조선 국적의 응답자(68.0%)가 다른 국적의 응답자(한국 국적-50.6%, 일본 국적-45.7%)에 비해 ‘남북 분단’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조선 국적의 응답자는 일본과 남한으로부터 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더 강하게 인식할 것이다.<sup>14)</sup>

한편,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 ‘남북 분단’을 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족학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아무래도 민족학교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응답자보다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많이 택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한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일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표 4. 일본인 때문에 고생했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계	국적		
		한국	조선	일본
결코 용서할 수 없다	11.5	11.5	20.0	5.7
진정 사죄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	16.2	17.8	16.0	5.7
용서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62.1	61.7	56.0	68.6
불행한 과거이므로 잊자	5.4	4.3		17.1

14)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이전에 조선인에게 강제로 주어진 일본 국적이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박탈되었다. 당시에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조선반도가 내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일본 정부가 강제한 외국은 등록 과정에서 대다수의 재일조선인은 ‘조선적’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선적’은 조선반도의 북 또는 남에 대한 국가적 귀속이 아니라 조선 민족 전체에 대한 민족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한국적’은 ‘조선적’과는 달리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국민적 귀속을 의미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같은 의미 부여가 한국, 일본 두 나라에 의해 진행되었다... 1965년 한일조약으로 일본은 한국하고만 국교를 맺었다. 요컨대 한일조약을 계기로 재일조선인은 분단되고 그 일부가 한국 국민으로 편입되었다. 동시에 일부는 난민 상태로 방치되었다.’ (서경식,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238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용서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62.1%)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진정 사죄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16.2%)가 다음으로 많이 나왔다. ‘용서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앞으로도 잊혀 지지 않을 것이라 대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아갈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잊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답변한 ‘진정 사죄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의 경우에는,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일본을 용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아직 까지도 ‘진정한 사죄’를 했다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가정한다면, 여전히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을 용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국적별 응답자들의 반응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조선 국적의 응답자는 다른 국적의 응답자에 비해 ‘결코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를 택한 비율(20.0%)이 높은 편이었다. 일본 국적의 응답자 가운데 5.7%만이 ‘결코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를 택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국적의 응답자 가운데는 아무도 ‘불행한 과거이므로 잊자’를 택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 국적의 응답자 가운데 17.1%는 일본인 때문에 고생했던 역사에 대해 ‘불행한 과거이므로 잊자’라고 답하였다. 다른 국적의 응답자에 비해 일본과의 과거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나타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일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진정한 사죄를 할 때 가능한 것이고, 설령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행한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일본이 ‘가해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또한 재일조선인들에게 식민지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임을 짐작케 해준다. 서경식은 ‘식민주의의 계속으로서 차별과 편견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실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울곧게 직시하지도 않고 자기성찰을 하지도 않으며 극복할 수도 없는 일본인 다수자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5)</sup> 오늘날도 계속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나지 않는 한, ‘피지배자’로서의 재일조선인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 2) 이산과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이산의 트라우마는 국가를 잃어버린 민족이 제국주의적 약탈정책과 식민화정책에 의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다른 민족과 함께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 억압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산의 트라우마는 거주국이 행사하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와 함께 나타나기가 쉽다. 그런데 이주해간 곳이 곧 식민종주국이기도 한 재일조선인에게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는 더욱 강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5. 최근 일본에서 실시하는 민족정책에 만족하십니까?

	총계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매우 만족	2.2	2.4		2.9
만족	8.9	7.1		28.6
불만족	51.9	55.3	32.0	42.9
매우 불만족	34.1	32.4	68.0	20.0

응답자 가운데 51.9%가 ‘불만족’, 34.1%가 ‘매우 불만족’을 택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최근 일

15) 서경식,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66쪽.



본에서 실시하는 민족정책에 ‘불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많은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사회의 억압적 규범 등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된 삶을 살아온 것과 관련될 것이다. 국적별로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일본의 차별적인 민족정책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조선 국적의 응답자는 전부가 ‘불만족’(32.0%) 또는 ‘매우 불만족’(68.0%)을 택하였다. 아무도 ‘만족’한다고 답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일본 국적의 응답자 가운데 28.6%는 일본에서 실시하는 민족정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물론 일본 국적의 응답자 가운데서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택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다른 국적의 응답자에 비해서는 ‘만족’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는 일본에서 실시하는 민족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이나마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택하는 응답자도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재일조선인이 비슷한 강도로 일본사회로부터 오는 국가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라경수는 현재 일본에서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생’의 대상으로 ‘재일조선인’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16)</sup>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재일조선인사회와 일본사회의 평화로운 공생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생의 가능성 속에서 일본사회에 무리 없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일본사회로부터 오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다른 재일조선인들에게처럼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조사 대상자인 응답자들만을 놓고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일본의 민족정책에 불만족을 한다고 답하였다. 민족정책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일본사회 내에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본 경험과 관련될 것이다.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

표 6.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총계	국적		
		한국	조선	일본
있다	70.7	73.5	88.0	37.1
없다	27.7	24.9	12.0	60.0

전체 응답자의 70.7%는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본사회에서 폭력적인 차별을 당해온 재일조선인들의 트라우마는 특히 재일조선인문학에 잘 투영되어 있다. 권성우는 재일조선인 여성 작가 이양지의 소설 속 여주인공이 갖고 있는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고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보았다.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사회의 차별로 인해 받은 상처는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역사적 차원의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양지 소설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조오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떼뻗치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점을 은폐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행위에서 정신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이 짝트게 되었다고 보았다. 주인공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단지 개인적인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사적 기억에 연루되어 있는 병리적인 현상인 것이다.<sup>17)</sup>

16) 라경수, 「일본의 다문화주의와 재일코리아-공생과 동포의 사이-」, 『재외한인연구』 제22호, 재외한인학회, 2010, 90쪽.

17) ‘일본인 누군가가 언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은 <해녀>의 주인공, 아니 이양지의 내면을 지배하는 상징적인 공포였다. 관동대학살의 과정에서 특히 조선인 여성에 대한 학살은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음부에 죽창을 찔러 꽂는 등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처절한 ‘학살의 기억’이 디아스포라 여성 작가인 이양지에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학살의 기억’은 <해녀>의 주인공에게 “한국인 환자가 찾아오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살해해버리자고 일본인 의사들끼리 미리 짜 놓은 약속이 있다” 식의 피해망상과 자신을 쫓아오는 남자에 의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강박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대목은 궁극적으로 보면, 일본사회에서 차별된 삶을 영위하는 재일 한국인의 상처받은 자의식과 피해망상에 다름 아니다.’(권성우, 「재일 디아스포라 여성소설에 나타난 우울증의 양상-고(故) 이양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0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109쪽.)

국적별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국적(73.5%)과 조선 국적(88.0%)을 가진 응답자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일본 국적을 가진 응답자의 60.0%는 차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한국 국적과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와 상당히 대조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같은 재일조선인이지만 국적에 따라 일본의 민족정책 내지 차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조선 국적을 가진 재일조선인의 경우에는 ‘조선적은 곧 북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일본사회 내에서 더욱 심한 차별을 경험했을 것이다. 2009년에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고조된 반북 감정이 ‘재일’사회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커다란 압박감을 주었는데, 당시 일본사회의 반북 감정은 그 분노의 화살이 재일조선인에게 향해졌다. 급기야 조총련 계열의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해코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sup>18)</sup> 박광현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북한의 통칭인 ‘북조선’과 관련한 일본 국내의 보도가 ‘조선적’과의 동일시를 조장한 측면과, 또 그로 인한 국민적 착시 현상에 기인한 측면도 많다고 지적한다.<sup>19)</sup>

한편,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조선인의 경우에는 일본사회 안에 불어 온 한류 열풍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사회 내에서 한국과 한국인을 표상하는 위치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다.<sup>20)</sup>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점차 확대되면서, 한국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비롯해 수많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조선인들은 본토(대한민국)에서 온 한국인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 더욱 부각되어 역으로 차별을 경험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표 7. 다른 민족에 비해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총계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매우 그렇다	11.5	10.7	32.0	
약간 그렇다	32.8	34.0	40.0	20.0
그렇지 않다	33.4	35.6	16.0	31.4
전혀 그렇지 않다	19.7	17.8	8.0	42.9

앞선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일본의 민족정책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일본에서 조선인이라고 차별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에 비해,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편이었다. 다른 민족에 비해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응답자(‘매우 그렇다’-11.5%, ‘약간 그렇다’-32.8%)와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는 응답자(‘그렇지 않다’-33.4%, ‘전혀 그렇지 않다’-19.7%)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질문에 ‘일본사회’가 아닌 ‘일본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될 것이다. 일본사회는 재일조선인사회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강압적인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일본인 개인과의 교류는 민족적 편견과 선입관을 넘어서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재일조선인사회는 일본의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매년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재일코리언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고, ‘다루부(double)’ 혹은 ‘하후

18)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사회에서 재일 코리안에 대한 테러의 위협은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학교로 전화를 걸어와 “나는 우익이다. 내일 한 마리 죽일 것이니 당장 떠나라!”라고 버까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 담장에 붙어 확성기를 틀어대고 “폐지새끼같은 조선인, 당장 떠나라!”라고 소리를 높이는 자도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도 모를 테러가 두려워 사회활동을 위해 조선식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거나 학교 밖에서는 치마저고리 착용을 금지하기도 하고, 통학버스에 학교이름을 지우기도 해야 했다. 조선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감내해 할 공포와 두려움은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큰 공포가 아닐 수 없었다.’(김태만, 위의 글, 384쪽.)

19) 박광현,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일본연구』 제13집,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2010, 422쪽.

20) 박광현, 위의 글, 423쪽.

(half)'로 불리는 재일코리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민단)과 북(총련)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이분법적 잣대로 그들을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sup>21)</sup>는 지적과, 재일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사랑과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들이<sup>22)</sup>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변화들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국적에 따라 일본인에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 국적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답변도 적지는 않았지만(‘매우 그렇다’-10.7%, ‘약간 그렇다’-34.0%),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그렇지 않다’-35.6%, ‘전혀 그렇지 않다’-17.8%)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는, 무려 32.0%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40.0%가 ‘약간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대다수가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국적을 가진 응답자 42.9%는 ‘전혀 그렇지 않다’, 31.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유일하게 일본 국적의 응답자 가운데서만 ‘매우 그렇다’를 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국적별로 일본인에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교류가 점차 늘어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관계 정립에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에게서 일본인에 대한 보복 감정의 강도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을까.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값이주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표 8.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값이주고 싶다.

	총계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매우 그렇다	4.1	4.0	12.0	
약간 그렇다	13.1	12.6	32.0	2.9
그렇지 않다	42.7	43.1	36.0	42.9
전혀 그렇지 않다	38.5	38.7	20.0	51.4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값이주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42.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38.5%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으로까지는 확장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국적별 차이는 나타난다. 조선 국적의 응답자들 가운데 12%는 ‘매우 그렇다’라고, 32%는 ‘약간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다른 국적의 응답자와 비교해보면 꽤 높은 수치이다. 특히 일본 국적 응답자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일본 국적 응답자 가운데 ‘매우 그렇다’에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42.9%가 ‘그렇지 않다’, 51.4%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다음의 표를 통해 일본인에 대한 보복 감정과 적대성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9. 보복 감정과 적대성의 교차 분석

21) 라경수, 「일본의 다문화주의와 재일코리언-공생과 동포의 사이-」, 『재외한인연구』 제22호, 재외한인학회, 2010, 81쪽.

22) 김태만은 <우리이젠 원래 국가가 없었다>와 <박치기>라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 영화들을 분석하면서 <우리이젠 원래 국가가 없었다>는 일본사회에서 일본인들과의 공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화해’라는 것을 제시하고, <박치기>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사랑과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김태만, 「재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영화 <우리이젠 원래 국가가 없었다>, <박치기>,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380-382쪽.)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주고 싶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과 축구경기를 할 때 북한이든 한국이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렇다	61.5	73.2	58.2	33.9
	그렇지 않다	38.5	24.4	39.6	64.5
일본과 축구 경기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일본이 지길 바란다	그렇다	61.5	31.7	10.4	4.1
	그렇지 않다	38.5	68.3	88.1	94.2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게 억울하다	그렇다	38.5	17.1	6.0	2.5
	아니다	61.5	82.9	92.5	95.9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주고 싶다'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 가운데 61.5%, '조금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 가운데 73.2%는 '일본과 축구경기를 할 때 북한이든 한국이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답했다.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주고 싶다'에서 '그렇지 않다'를 택한 사람 58.2%, '전혀 그렇지 않다'를 택한 사람 33.9%도 '일본과 축구경기를 할 때 북한이든 한국이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보복의 감정(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주고 싶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과 축구경기를 할 때에는 북한이나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복의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주고 싶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를 택한 응답자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택한 응답자들은 '일본과 축구 경기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일본이 지길 바란다'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를 더 많이 택하였다. 그러니까 일본에 적대적 감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일본이 어느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하든 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사회 내에서 보다 일본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점과, 매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인과 결혼하는 재일조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많은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내면화하며 점차 '일본인화' 되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일본에 대해 적대적 감정 또는 복수의 감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게 억울하다'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본은 재일조선인들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대국이라는 것은 재일조선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양지의 소설에는 재일조선인이 비록 일본사회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받아왔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는 강국이기에 때문에 일본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무리 노력해도 한국사람이 되기가 힘든 그러한 불안과 좌절감 속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일본이라는 소위 선진국에서 왔다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자만심과 우월감 등 상반된 감정이 항상 굴절된 채 얽혀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재일동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sup>23)</sup>

'일본의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적 이주를 근간으로 형성된 재일조선인사회가 직면한 억압적 사회 구조와 정체성의 혼란은 역설적으로 재일조선인 주체를 탈식민의 기획 안으로 포섭하면서 교섭과 혼종의 복합적 정체성을 생성하도록 종용한다. 재일조선인은 식민 주체인 일본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면서 대항하는 양가적 모방의 원리를 반복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탈식민적 거점을 형성한다'<sup>24)</sup>는 논의 역시 위의 인용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 이양지, 김유동 역, 『나비타령』, 『유회』, 삼신각, 227쪽.(권성우, 「재일 디아스포라 여성소설에 나타난 우월주의 양상-고(故) 이양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0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113쪽에서 재인용.)

24) 윤송아, 위의 글, 43쪽.

### 3) 분단체제와 분단의 트라우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일조선인사회는 한반도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다.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일본의 외교 정책에 따른 ‘조선적’과 ‘한국적’의 구분은, 재일조선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일한국인·재일조선인으로 호칭을 구분하여 부르는 것도 국적에 따라 재일조선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이렇게 재일조선인사회를 다시 한 번 분단시키고 말았다. 대부분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국적’에 따른 응답자간의 성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분단으로 인한 문제가 재일조선인사회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10.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계	국적		
		남한	조선	일본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87.9	89.3	96.0	71.4
다소 피해를 입었다	10.2	8.3	4.0	28.6
피해를 입지 않았다	.6	.8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7.9%가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답하였다. 이번 항목만큼은 국적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다수가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 인한 상처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본격적으로 재일조선인들이 인지하는 남북의 분단에 따른 트라우마를 알아보기 위해, ‘남한 또는 북한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표 11. 남한 또는 북한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계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남한	그렇다	28.7	29.2	36.0	17.1
	그렇지 않다	28.3	28.1	32.0	28.6
	모르겠다	41.7	41.1	32.0	54.3
북한	그렇다	46.2	48.6	32.0	37.1
	그렇지 않다	18.2	16.2	40.0	17.1
	모르겠다	34.1	33.6	28.8	42.9

‘남한’의 정권이 해외동포를 이용한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전체의 28.7%였고, ‘북한’의 정권이 해외동포를 이용한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전체의 46.2%였다. 전반적으로 남한보다 ‘북한’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를 이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 악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일조선인사회에 가해진 압력과 관련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적에 따라 답변의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조선 국적 응답자의 답변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조선 국적의 응답자 전체의 36%는 ‘남한’의 정권이 해외동포를 ‘이용한다’라고 대답하였는데, 다른 국적의 응답자에 비해 수치가 높게 나타난 편이다. 또한 조선 국적의 응답자 전체의 40%는 ‘북한’의 정권이 해외동포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이렇게 조선 국적의 응답자에게서 ‘남한’의 정권이 해외동포를 이용한다고 여기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식민지 지배 기간에는 대일본제국에 의해 ‘일본 국민화’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일본 지배에서 해방된 뒤에는 분단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화’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sup>25)</sup>’라고 한 서경식의 말은, 조선 국적을 가진 재일조선인이 남한 정권으로부터 받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를 짐작하게 해준다.

표 12. 내 조상의 나라(모국)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총계	국적			민족학교 경험	
		한국	조선	일본	경험있음	경험없음
일본	3.2	3.2		5.7	2.9	3.4
북한	2.5	1.6	12.0	2.9	4.8	1.5
남한	40.4	45.1	4.0	34.3	28.6	46.6
조선반도	43.9	42.7	72.0	31.4	55.2	38.3
일본과 조선반도	8.0	6.3	4.0	22.9	5.7	8.7

전체 응답자의 40.4%는 내 조상의 나라를 ‘남한’으로 여겼고, 43.9%는 내 조상의 나라를 ‘조선반도’, 즉 분단 이전의 ‘한반도’라고 여겼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조선반도’를 모국으로 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 전체의 72.0%는 ‘조선반도’를 조상의 모국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12.0%만이 ‘북한’을 조상의 모국으로 여기고 있었다.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이전에 조선인에게 강제로 주어진 일본 국적이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박탈되었다. 당시에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조선반도가 내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일본 정부가 강제한 외국인 등록 과정에서 대다수의 재일조선인은 ‘조선적’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선적’은 조선반도의 북 또는 남에 대한 국가적 귀속이 아니라 조선 민족 전체에 대한 민족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26)</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조선적은 조선 민족 전체에 대한 민족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 국적을 가졌으면 무조건 ‘북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보려는 것은 재일조선인사회가 갖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선입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적’에서의 ‘조선’은 애초에 ‘북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단 이전의 ‘조선반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조선적은 곧 북한적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sup>27)</sup>

일본사회 안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는 재일조선인사회는 한반도의 분단체제에 의해 ‘한국적’과 ‘조선적’으로 다시 한 번 분리되어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일본의 국가폭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트라우마 뿐 아니라, 남과 북이라는 분단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표 13. 나는 남한 또는 북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

		총계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남한	있다	38.9	41.9	52.0	5.7
	없다	60.2	57.7	44.0	91.4
북한	있다	4.8	4.7	12.0	
	없다	92.4	92.5	84.0	97.1

25) 서경식,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54쪽.

26) 서경식,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238쪽.

27) 권혁태는 한국사회가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지를 상업 영화, 대중 만화, 신문 등을 통해 살펴보면 서,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미지는 반공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배양된 것으로서, 대체로 한국말을 잘 못하는 ‘반쪽말이’, 총련 등에서 연상되는 ‘빨갱이’, 그리고 경제대국 일본의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부자(줄부)’로 대표된다.’라고 하였다. 아무래도 조선적하면 총련이 먼저 떠오르고, 총련하면 ‘빨갱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한국사회 안에서는 조선적은 곧 빨갱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가-」, 『역사비평』 78호, 한국역사연구회, 2007, 234쪽.)

남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8.9%였지만, 북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8% 밖에 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북한으로부터는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에 비해 많은 응답자들은 남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북한보다 '남한'으로부터 오는 차별, 소외, 무관심의 경험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은, 일본에서 북한보다는 남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래도 더 자주 접촉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을수록 상대방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서 남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은 41.9%로 높은 편이었다.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서도 52.0%가 남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일본 국적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른 국적을 지닌 응답자에 비해 남한이나 북한으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이 북한보다는 남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보다는 남한으로부터 오는 차별, 소외, 무관심의 경험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이어지는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응답자들의 이러한 성향과 맞닿아 있다.

표 14.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총계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매우 만족	1.3	1.6		
만족	17.5	16.6		37.1
불만족	57.3	58.1	76.0	40.0
매우 불만족	8.9	9.5	12.0	

전체 응답자의 57.3%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하였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58.1%가 '불만족'을, 9.5%가 '매우 불만족'을 택하였다.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76.0%는 '불만족'을, 12.0%는 '매우 불만족'을 택했으며, '만족'을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응답자들에게서 대체로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나온 것은, 실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양가적인 시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송아는 "한국 정부가 만든 내셔널리즘은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백안시하였고,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재일조선인은 조선총련(朝鮮總連)의 간첩이 아닐까 경계하였다."는 한 재일조선인 연구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이 타자적 시선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sup>28)</sup> 권혁태 역시 한국에서 재일조선인 문제를 '일본문제'의 하나로 보면서 '외부화'시키려는 시선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였다.<sup>29)</sup>

표 15. 한국인(남쪽 사람)이 재외동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총계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매우 만족	1.0	1.2		
만족	22.3	20.2	20.0	40.0
불만족	54.5	55.3	60.0	42.9
매우 불만족	5.4	6.3		2.9

28) 윤송아, 위의 글, 3쪽.

29)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가-」, 『역사비평』 78호, 한국역사연구회, 2007, 235쪽.

표 14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게, 전체 응답자의 54.5%가 한국인이 재외동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표 14와 비교해서 조금이나마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한국인이 재외동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20.0%가 한국인의 태도에 만족을 한다고 하였다. 물론 불만족 한다는 경우도 60.0%나 되기는 하지만, 남한사회(한국의 재외동포정책)가 아닌 남한사람과의 개인적인 교류에서는 보다 교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여기서 한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 '매우 불만족'을 택한 비율이 6.3%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선 국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서는 '매우 불만족'을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은 '한국인(남쪽 사람)이 재외동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답을 하였다. 바꿔 말하면, 과반수이상이 되는 응답자들은 한국인의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일조선인 연구자나 작가들은 재일조선인이 한국인에게서 받는 가장 큰 상처 가운데 하나가 '언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국어 내셔널리즘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모어와 모국어가 같은 사람들은 언어 다수자다. 언어 다수자는 자신의 언어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는 그대로 자신이 속하는 나라의 국어다. 오직 그것만이 표준이고 다른 표준적 언어는 없다. 재일조선인은 자신에게 비모어인 조선어를 아무리 잘해도 끝내 마음이 편해질 수 없다. 표준은 언제나 자신의 밖에 있기 때문이다.<sup>30)</sup>

한국사회는 국어 내셔널리즘이 지배적인 곳이다. 그런데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일본어가 곧 국어이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어는 자신의 의식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편안한 언어이며, 자신의 생각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국어(조선어)를 익힌다 하더라도 표준적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어 내셔널리즘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표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일조선인들은 언어의 문제로 인해 한국인이나 한국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소외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일조선인 작가 유미리의 “나는 일본어에도 한국어에도 항상 위화감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이 위화감이야말로 소설을 쓰는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sup>31)</sup>라는 진술 역시, 언어의 분열이야말로 재일조선인들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겪게 되는 심각한 상처라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sup>32)</sup>

한편으로는 재일조선인이 한국사회 또는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상처의 원인을 재일조선인이 갖고 있는 양극적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간 약속이나 일을 진행하는 게 분명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사과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선 행동부터 하고 보는 그들에게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몸에 밴 법칙과 습관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33)</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유미리는 자신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

30) 서경식,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41쪽.

31) 권성우, 권성우, 「재일 디아스포라 여성문학에 나타난 탈민족주의와 트라우마-유미리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011, 318쪽 재인용.

32) 서경식은 ‘근대 국민국가가 ‘모어’, ‘모국어’, ‘국민’을 등식으로 연결하려는 국어 내셔널리즘과 불가분의 관계인 이상, 주변화된 사람들은 언어 간의 경계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내면에까지 모든 언어의 균열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였다. (서경식, 위의 책, 44쪽.)

33) 유미리, 한성례 역, 세상의 균열과 혼의 공백, 문학동네, 2002, 59쪽.



게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미리뿐 아니라 이양지의 소설에서도 한국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권성우는 이양지의 소설 속 주인공 유희의 한국에 대한 불만과 환멸은 곧 조국(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한 디아스포라가 지닐 수밖에 없었던 관념적 낭만과 환상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희는 자신이 일본에서 주관적으로 상상하고 갈망한 한국사회의 모습이 현실과 다르다고 우울해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일조선인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균열과 분열의 모습, 즉 자신이 거부하고자 했던 일본사회의 습속과 가치가 자신에게 깊숙하게 내면화되어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4)</sup> 재일조선인이 가질 수 있는 일본과 고국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은, 실제 고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거나 고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었을 때 분열된 모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4. 재일조선인 역사적 트라우마의 특징

지금까지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분석하기 위해 ‘근원적 트라우마’라 할 수 있는 ‘식민 트라우마’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산의 트라우마’와 ‘분단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착종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재일조선인의 식민 트라우마는 과거의 식민 기억에서뿐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는 다르게 식민 종주국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잔재처럼 일본사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일조선인의 이산 트라우마는 식민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더욱 강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으로 이주하여 다른 민족과 함께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 억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의 트라우마는, 식민의 트라우마와 결합하면서 더욱 강력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분단 트라우마’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우에는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 국적’, ‘조선 국적’, ‘일본 국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국적으로 나뉘어져 각기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재일조선인사회는 ‘민족의 분단’ 뿐 아니라 ‘민족으로부터의 분단’도 경험해야 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비해 재일조선인에게에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라우마가 보다 복잡하고 강도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표 16. 일본과 한반도로부터 오는 이중적인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순 위	일본에서 차별 당한 경험 중에 내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것	남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북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위	민족적 편견과 무시 (52.7%)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37.4)	편견과 선입관을 가진 태도 (46.7%)
2위	취업과 임금 등 경제적 차별 (21.2%)	편견과 선입관을 가진 태도 (30.9%)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33.3%)
3위	정치적 권리의 제약 (10.4%)	무관심 (9.8%)	무관심 (13.3%)

일본에서 차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가운데 52.7%는 ‘민족적 편견과 무시’로 인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다. 남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대답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46.7%는 ‘편견과 선입관을 가진 태도’를, 33.3%는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라고 답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도 46.7%는 ‘편견과 선입관을 가진 태도’를, 33.3%는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라고 답하였다. 재일조선인은 한편으로는

34) 권성우, 「재일 디아스포라 여성소설에 나타난 우울증의 양상-고(故) 이양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0집, 2009, 114-115쪽.

일본사회에서도 외부인 취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남한이나 북한으로부터도 외부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정리하면,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거주국인 일본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와 남과 북이라는 분단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탈민족주의와 연관 짓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권성우는 다음에 나오는 유미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재일조선인 문학에 나타나는 탈민족주의를 분석하였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재일 한국인에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모의 교육 방침에 따라 엄격하게 한국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민족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이름도 물론 한국 이름을 사용한다. 두 번째 유형은 국적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이 일본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재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열심히 감추려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 이름으로 생활하고는 있으나 한국말은 한 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sup>35)</sup>

이러한 재일조선인의 탈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우려나 비판의 시각도 분명 있다. 그렇지만 서경식은 탈민족적인 정체성을 보이는 재일조선인을 향한 한반도의 편견과 선입관을 가진 태도를 경계하면서, 이미 다언어다문화가 되어 있는 집단을 단일혈통단일언어단일문화 집단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을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동포를 내버리는 비극이라고 하였다.<sup>36)</sup> 고정적인 민족을 전제로 놓고 자격의 유무를 따지는 사고방식 또한 재일조선인의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 5. 나가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분석했던 것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일조선인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경향성 내지 무의식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보기 위해서였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특징이 드러나야, 그에 대한 치유의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차후 보다 심층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그 치유 방향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35)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재일 한국인에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모의 교육 방침에 따라 엄격하게 한국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민족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이름도 물론 한국 이름을 사용한다. 두 번째 유형은 국적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이 일본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재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열심히 감추려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 이름으로 생활하고는 있으나 한국말은 한 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유미리, 김난주 역, 『“중요”를 넘어선 언어』, 『물고기가 꿈 꿈』, 열림원, 2001, 240쪽. (권성우, 「재일 디아스포라 여성문학에 나타난 탈민족주의와 트라우마-유미리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011, 315쪽에서 재인용.)

36) 서경식,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74쪽.